



# 교정동우회가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 연혁

- 1963. 10. 1. 퇴직교정기관장들이 교우회 발족
- 1983. 11. 4. 정부 방침으로 전국규모의 교정동우회 출범
- 2013. 7. 29.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공포 시행

## 목적

- 회원들의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 교정발전에 기여
-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 함양, 교정의 선진화 등 공익실현
-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등

## 조직

- 임원진 :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대의원
- 지 회 : 36개 지회 (정우회 포함)
- 회 원 : 정회원 3,700여명  
※ 명예회원 : 현직 교정공무원 16,647명

## 주요사업 및 활동사항

- 회원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사업
-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사업
- 현직 직원과의 유대강화·교정참여
- 수용자 교정교화 및 출소자 재사회화 사업
- 도서출판 및 판매업등 수익사업
- 국민의 법질서의식 함양 사업
- 지역사회 유대강화 및 봉사활동 사업 등

## 가입문의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34 교정공제회 역삼빌딩 10층  
문의: 02-521-2026, FAX 02-6952-2023  
홈페이지: <http://www.kncova.or.kr>
- 전국 지역별 각 지회  
퇴직 시 소속 교정기관 총무과(서무담당)에 문의

## 전국 각 지회 현황

2025. 1. 1. 기준

지역별	지회별	회장	사무국장
서울지역	서울	박수호	안승용
	동부구	백봉기	안외섭
	남부구	진기대	류성현
경기지역	남부교	이종근	김범남
	안양	박상재	조성주
	인천	허역인	장재학
	수원	유병성	한춘택
강원지역	평택	권윤식	구자현
	의정부	이상수	민경주
	춘천	채용석	홍병걸
경북지역	원주	이기남	문정현
	강릉	권혁무	강기원
	대구	조천해	이종완
	대구구	정화선	이영준
경남지역	안동	김수현	김성배
	김천	이근재	김진홍
	경주	서경석	최현찬
	청송	김형선	이오우
충청지역	부산	조경종	장성환
	부산강서	김영귀	전준석
	창원	김종우	주강돈
전북지역	진주	한윤갑	조호제
	울산	정진훈	공정술
	대전	김영복	최관규
	천안	송창호	양해문
전남, 제주지역	공주	명제능	김세환
	홍성	추현국	김원정
	청주	오호성	남익우
서울	전주	김재영	이만호
	군산	나종철	김형섭
	광주	배정배	이성재
	목포	조규도	박종화
서울	순천	조점기	김은섭
	장흥	이상실	강근배
	제주	신원식	김남경
서울	정우회	나승두	(정명철)
	본 회	송영삼	정명철
계	본회, 36개 지회 (1정우회)		

\*연락처는 개인정보 관계로 생략하였습니다.



9 772671 930009  
ISSN 2671-3304

# 교정

vol.584.  
2025. January

01



# Contents

vol.584\_2025. January



12



28



80

## 아름다운 동행

### 04 함께하는 길

함께하는 길  
이태희 전 교정본부장(현 교정대상심사위원장)

### 08 생각의 창

교도관 역할갈등에 대한 소고  
김도영 인천구치소 교사

### 12 우리는 한마음

경험·연륜으로 이어가는 교정의 가치,  
교정동우회의 새로운 도약  
인터뷰 |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 교정 이야기

### 16 교정 기관

범죄를 넘어 희망으로: 중간처우 제도로 재범 방지 선도  
안양교도소

### 22 교정과 사람들

117년 세월의 역사에 변화와 가능성의 세계를 심다  
안양교도소 총무과

## 교정 아카이브

### 28 교정 포커스

중국 교정시설 방문기  
김보성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교위

### 46 교정 논문

마약류사범 대상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의  
타당화 연구(상)  
정여경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 교감

### 56 교정 리포트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사례연구:  
유전과 환경의 영향 비교  
신연희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교정 뉴스

### 80 교정본부 NEWS

### 82 교정기관 NEWS

### 89 모범 공무원

### 90 독자마당



## COVER STORY

희망과 다짐으로 가득 찬 이즈음, 교정 현장에서도 변화와 성장을 위한 '시작'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2025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교정(矯正)'을 경주해 갑시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순간의 열정과 노력, 또한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기대합니다.

아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5년 1월 16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카카오톡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하는 길



이태희  
전 교정본부장  
(현 교정대상심사위원장)

새해 시작과 더불어 오랜만에 교정지에 글을 올리려니, 이렇게나 벽찬 설렘과 감회가 마음을 죄어옵니다. 줄필을 깨넘치 않고 글을 나눌 여백을 배려함이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음을 나누어갈 글길을 발디딤에 즈음하여, 일평생 마주하고 경험했던 삶의 흔적들과 또한 그로 인해 숙명처럼 키우고 지녀야 했던 마음의 각오들을 문득 상기해 봅니다. 아울러 교정의 새로운 지평을 가리키는 희망의 언어들 불러 보듬고,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 소중히 새기는 것으로 내 글의 자리를 채워가리라는 또 다른 다짐을 가져봅니다. 어쩔 새해에는 그야말로 기쁨과 희망을 만끽하면서 보낼 수도 있겠다는 예감으로 마냥 마음이 따뜻해져만 옵니다. 돌이켜 보노라면 교정의 삶터는 이미 10여 년 전 아쉽게 손 흔들고 떠나왔었지만, 그러나 다행히도 교정지와 의 연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매월 우편함에 들어 있는 교정지가 내게는 아주 드물고 귀한 반가움이었습니다. 언제나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열어보기도 하지만, 익숙한 풍경과 글귀들은 노상 따뜻하게만 가슴에 안겨 왔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아꼈던 흔적과 기억들이 순도 높은 와인의 여운처럼 가득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다 그리움으로 다가서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보태어, 과거엔 몰랐거나 미처 돌아볼 여력이 없어 놓치고 있었던, 그야말로 격조 높고 역동적인 교정의 분투와 빛나는 승전보라도 마주하는 날이면, 마음 가득 일렁이는 박수가 다만 기꺼울 따름이었습니다. 우리 청춘의 모든 것이기도 했던 제복에 땀으로 남고 굳은, 과거와 오늘의 궁지가 단절되지 않고 서로를 이어 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제복에 배인 자존심이, 모든 격려와 응원과 함성의 좌표인 양 우리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모두를 이끌고 있었던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땀은 우리들의 길들여진 기억으로 하여 떠나왔어도 쉽게 휘발되지 않고, 마주칠 때마다 그리 애뜻하고 각별한 해후의 실마리가 어디 교정지 하나에만 그치겠습니까. 길을 걷다 문득 마주치는 호송버스는 또 어떻습니까. 붉고 푸른 불빛으로 번쩍이는 그 버스를 보노라면 마치 헤어진 옛 애인의 크고 깊은 눈동자라도 마주한 듯 절로 가슴이 쿵쾅거리 옵니다. 비번 근무로 충혈된 눈을 비비며 달리곤 했던 호송버스는, 짧은 날 한때는 술한 회한과 다짐을 담고 아프게 오가기도 했었던, 지나고 보니 그 모두가 그림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안겨 올 뿐입니다. 어찌면 모든 사람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추억들을 그렇듯 하나씩은 가슴에 묻은 채 늙어가는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종합병원을 찾을 만큼 잔병치레를 하다 보니, 외부 병원 진료차 온 호송버스도 가끔 만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냥 정차되어 있는 것이었으나, 더러는 수형자를 대동하고 하차하여 능숙하게 직무에 임하는 직원들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법의 그림자를 보는 듯한 그 광경을 지켜보노라면 불현듯 마음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구경꾼으로만 머물기에는 그 모습에 엮인 세월의 무게가 정녕 만만찮았던 탓이겠지요.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을 결정한다'고도 합니다. 일찍이 제복을 벗어 일반인의 세월을 걸어 온 날도 이젠 제법 오래되었건만 교정에 관한 것이라면, 살며 마주치는 사소한 어느 하나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게 지나쳐지지 않았습다.

지난해 10월 초순에는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퇴직 후 가끔씩 다녀온 동남아 쪽 패키지 여행상품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하나같이 저가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가 항공 비행기는 앞뒤 좌석 간의 사이가 워낙 좁은 터라 나로서는 그 불편함을 이겨낼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궁즉통이라고, 그래서 알아낸 방법이 비상시 비행기의 비상구를 내기 위해 비워둔 좌석 옆의 바로 뒷자리, 통칭 '비상구석' 또는 '비상구열'로 불리우는 좌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좌석은 앞좌석과는 상당히 떨어진 여유 공간이 있어 장시간의 비행에도 불편함을 덜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구를 작동하고 승무원과 함께 승객의 대피를 도와야 한다는 임무가 부여되는 이 좌석은 미리 예약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신체 건강 여부를 확인받은 뒤에야 배당되었는데, 비행기마다 5만 원 정도의 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좌석을 확보하고자 습관처럼 체크인 카운터에 다가섰더니, 입구 데스크에 전에 보지 못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기에 그 문구를 읽어 보다가 돌연 마음을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전현직 군인, 소방관, 경찰관은 비상구 좌석을 우선 배치해 드림' 하고 붙어 있는 게시문의 자구들이 큰 모욕과 배신감으로 다가든 때문이었습니다. 왜 여기 교도관이 빠져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을 힘들게 참아야만 했습니다.

문득 1970년대 및 80년대의 시외버스터미널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전국 모든 시외버스터미널의 매표창구에는 ‘경찰관, 교도관 50% 할인’이라는 안내문이 빠짐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교정이 공안의 표상으로 통칭되고, 그 수고로움에 대한 암묵적 공감대가 사회 저변에 확산되어 있음을 쉽게 눈에 넣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호송, 도주자 체포 등의 출장 시마다, 할인된 반액의 차표값 보다는 거기에 배인 세상의 한 줌 격려와 배려가 짧은 시절 그나마 우리 등을 토닥여 주는 응원의 손길인 듯해 정녕 감사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시절엔 명절이라도 다가오면, 지금과는 달리 도하 여러 일간지들이 칼럼의 한쪽을 비워 ‘지금 이 시간에도 밤을 새우며 사회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교도관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적어, 우리의 맘과 헌신을 존중해 주길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여행은 공항 카운터 데스크 위의 표식, 그 기저에 도사린 배반감이 여행기간 내내 마음의 지푸라기로 남아 여행의 즐거움이 반감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교정의 위상이 소리 소문 없이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 교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일상의 언어들과 사회적 시선들을 적기에 대적하지 못하고 수세적 침묵과 무기력에 안주해 온 것은 아닌지, 적잖이 염려되었고 또 무척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며칠 지나 외출을 했습니다. 펜스레 침잠하는 마음을 추스리며 조심스레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라디오를 틀었더니,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이유로 시작된 멘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병사와 다름없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들의 노고와 헌신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하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간의 서운했던 내 마음을 알고나 있었다는 듯한 그날의 아나운서 멘트는 실로 따뜻하게 다가들어, 금세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교정의 시간과 기억을 찾아주는 위로는 따로 숨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니다. FM 라디오 음악방송을 틀어 놓았는데, 한 곡이 끝나는 순간 시작되는 음악방송 진행자의 멘트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10월 28일 오늘은 제 79주년 교정의 날입니다. 교정의 날은 1959년 교도관의 날로 제정된 이래 1973년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2002년 교정의 날로 다시 분리되어 오늘의 이르고 있습니다.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교도관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하고 교정의 이력을 그렇게나 상세히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스 시간도 아닌 음악방송 시간에 교정의 날을 이렇듯 홍보해 주고 있다면, 이는 필시 우리 교정본부의 손을 댄음에 틀림없겠다는 생각에 그 수고가 가상하기만 했습니다. 이는 시대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이를 추진할 리더십이 조직 내에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지라 마음의 흡족함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희망, 자신감, 정의 등  
비물적인 가치는 무한하여  
아무리 부지런히 투망질 해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아 올 일은 없다



늦가을, 이슬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어쩔 함께하는 행운이다’라는 말에 문득 공감이 가지는 그런 날은, 바이닐 한 장을 턴테이블에 걸고, 짐짓 따뜻한 차 한 잔을 길게 음미하며 그 행운의 토닥임으로 마음을 잠재우고 싶어질 뿐이었습니다. 안온한 그 잠의 꿈은 마냥 달아, 잊고 지낸 모든 것들을 불러 가슴에 담게 해 주었습니다.

모조록 새해에는 보다 크고 미래지향적인 교정을 쫓아가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추동하고, 그 길이 만들어 줄 보람에 가슴을 묻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뒷날에는 될수록 빛나는 문구로 오늘을 적고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자신감, 정의 등 비물적인 가치는 무한하여 아무리 부지런히 투망질 해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아 올 일은 없다’고 읽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해 하얀 눈의 띠 위에, 우리 약속의 발자국들을 그 선두에 새겨 봅시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 나갑시다. 대열의 선두에 서서 그 자리를 지켜 나가려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법, 행여 그 길의 여정이 바람의 길, 눈보라의 길로 다가서더라도 바람이라면 그 바람의 소리를 귀에 모으고, 눈보라치면 그 눈의 몸부림을 가슴으로 품어 녹여 나갑시다.

“매주 80시간 이상 무보수로 일할 혁명가를 찾는다”는 공고를 낸, 트럼프 2기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의 터무니 없어 보이는 자신감 또한, 미래와 꿈을 향한 뜨거운 투망질의 일단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느끼는 큰 기쁨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 교도관 역할 갈등에 대한 소고



김도영  
인천구치소 교사

교도소의 외벽은 왜 회색일까.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선도 악도 아닌, 교도관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일까.

담 안과 밖의 경계에서 회색 외벽에 비친 나를 본다. 교도관은 형을 집행하고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교화와 상담을 통해 수용자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처벌과 교화. 이 갈림길에서 내가 느끼는 갈등은 단순한 직무의 어려움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다.

‘아동 살인’ 얼마 전, 8개월 된 아기가 친부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 아빠의 구둣발이 얼마나 아팠을지. 잔혹한 사건 내용에 내 턱관절에 힘이 들어갔다. 우리 아이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라 더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다. 언론은 연일 남자의 사건을 보도했고 범죄심리학자들은 그의 내면을 유추하고 추론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구속됐다. 남자와 내가 창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했을 때, 그는 웃고 있었다.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내가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남자는 부하직원에게 지시하듯 서류를 내밀었다. 교도소 예산, 교도관 수, 의료비 지출 내역 등 운영 자료를 요구하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는 커피물이 따뜻하지 않다는 이유로, 교도관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한 달에 150건이 넘는 진정서가 쏟아졌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는 없었다. 교도관들은 그의 요구에 따라 수천 장의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법은 살인자도 국민으로 바라봤고 교정 공무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했다.

“됐어요. 다 봤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그가 귀찮다는 듯 서류를 내려놓고 잡지 하나를 집어 들었다. 여성의 나체 사진이 수십 장 들어가 있는 누드 잡지였다. 아동을 살해한 사람도, 여성의 성을 유린한 사람도 누드 잡지를 구매 및 소지 할 수 있었다.

2018년, 보다 못한 어느 교도관이 성폭력 가해자의 누드 잡지 소지를 불허했다. 성폭력 가해자는 교도소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즉시 소송을 냈다. 법은 교도소가 구속된 범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의 손을 들어줬다.

남자는 매달 누드 잡지를 신청했고 교도관은 이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무력했다. 마치 팔다리가 잘린 것처럼 난 축 처진 어깨로 교도소 복도의 반대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교도관은 얼음 위에 불을 지피라는 요구를 받는 사람과 같다. 차갑게 규율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으면서도 따뜻하게 인간미를 잃지 말라는 양가적 임무를 부여받는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타자의 신체를 훼손한 가해자의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갈등은 교도관의 직무 소진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열악한 근무 환경이 더해져 교도관이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연구에 따르면 교도관은 직무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으로 4명당 1명이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



고, 교도관의 자살률은 경찰관 소방관과 비교해 봤을 때 인원 대비 2배 이상이라고 보고되었다. 또한 같은 제복공무원들에 비해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 소방 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도관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본법은 찾아볼 수 없다.

조직을 이탈하는 교도관이 늘어나자 교도관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직무능력을 함양하라는 메시지가 현장에 전달됐다. 하지만 과연 소명이나 사명감, 인권 감수성 훈련 같은 개인적 역량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이러한 문제가 교도관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일까.

주말 집건, 전화 통화 등 외부접견교통권이 확대되었고 연휴 운동, 화상 진료, 건강검진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진국의 교정행정이 도입됐다. 교정행정이 선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안 교도관의 근무 환경 및 복지는 어떤 상황일까. 구속된 범죄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건수는 2019년 66건에서 2023년 19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구속된 범죄자의 수는 지난해 5만 6천여 명에서 올해 6만 2천여 명으로 상승한 반면, 교도관의 수는 2022년 1만 6천 808명에서 올해 1만 6천 771명으로 하락했다.

실제 교도관을 폭행한 수용자는 벽을 치다 골절되어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호송됐다. 반면, 폭행당한 교도관은 다리를 절뚝이며 홀로 동네 병원으로 걸어갔다. 그 광경은 나를 오래도록 붙잡았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수용자의 대학병원 1인실 입원비와 수술비, 진료비는 모두 국가 예산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폭행당한 동료 교도관의 치료비와 위로금은 교도관 동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마련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맞아야 합니까.’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도관은 지친 얼굴로 술잔을 비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울분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위축되어 가는 교도관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교도관의 건강한 말과 행동은 교정교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위해서는 교도관이 보호받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정공무원의 복지 향상, 관련 법률 제정, 인력 충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도관의 역할이 개인의 인권감수성이나 소명, 사명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인권위원회 진정서 가지고 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남자는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다. 그에게 진정서를 건네고 돌아오는 복도, 문득 벽에 붙은 인권 침해 신고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당신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인권 침해 신고하세요.’

인권 침해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인권 보호를 요구한다. 그 요구는 법의 이름 아래 정당하다. 그러나 울음소리조차 남기지 못했던 아기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천 번이고 묻고 싶지만 법은 대답 대신 내 손에 진정서를 들려줄 뿐이었다.

프랑스 속담에 개와 늑대의 시간 l'heure entre chien et loup이라는 말이 있다. 해 질 녘, 저 멀리 다가오는 존재가 나를 지키러 오는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알 수 없는 순간을 뜻한다. 오늘 내가 마주한 그 살인자는 가까이 두고 보호해야 할 존재인가, 아니면 멀리 두고 경계해야 할 존재인가. 처벌인가, 보호인가.

어쩌면 나는 개와 늑대의 시간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다.

# 경험·연륜으로 이어가는 교정의 가치, 교정동우회의 새로운 도약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 INTERVIEW

‘인생은 60부터!’라는 호기로운 말에는 나이 들에 대한 아쉬움과 체념,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공존한다. 그러나 오히려, ‘인생은 60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75세’인지 모른다. 지난해 2월 취임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이하 교정동우회)의 송영삼 회장 역시 이를 증명하듯 자신감과 열정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글\_서선미 사진\_조인기

## 퇴직 후에도 계속되는 교정의 사명

교정동우회는 단순히 퇴직자들의 친목 모임이 아니다. 이곳은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고, 작게나마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의 뜻이 모인 범정단체다. 1963년 소규모 모임으로 시작된 교정동우회는 1983년 전국 조직으로 확장되었으며, 현재 약 3,700명의 퇴직 교도관이 전국 36개 지회에서 활동 중이다. 2013년 교정동우회법 시행 이후, 회원 간 친목 도모와 함께 교정의 발전과 공익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어오고 있다.

교정동우회의 본회는 중앙회 역할을 한다. 회장·부회장·감사·사무총장·이사·대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직 교도관은 법률상 명예회원으로 포함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회원 복지증진, 권익 신장, 수용자 교정교화, 출소자 재사회화 사업 등으로, 각 지회는 지역사회에서 불우이웃 돕기와 환경정화 같은 봉사활동을 펼친다. 현재 서산, 포항, 통영, 거창, 속초(강원북부) 지역에 지회 설립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송 회장은 교정동우회의 존립 의의를 “현직과 퇴직의 구분이 있을 뿐, 교정 시설에서 사람을 돕고 그들의 변화를 도모하려는 열망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로 설명하고자 했다. 공권력과 권한을 가진 교도관으로 일했던 과거와,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하는 지금의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송 회장은 “퇴직 후의 시

간이 비교적 여유로워 회원들이 교화 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험과 연륜이 쌓인 만큼 수용자와의 교감도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교화와 공익을 위한 지속 가능한 비전 모색

교정동우회의 설립 목적은 ‘회원 간 친목 도모’, ‘교정 경험과 지식 공유’, ‘법질서 의식 함양 및 교정의 선진화’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복지증진 및 권익 신장을 비롯,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교정동우회의 역할이라고 송 회장은 말했다. 물론 지역 특성과 지회장들의 리더십에 따라 그 내용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수용자 교화 활동을 전개하거나, 불우이웃 돕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송 회장의 분석이다.

“회원들과 함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용자 교화 활동을 전개하는 편이에요. 지역사회 내 청소나 시설 개선을 위해 시간을 쓰기도, 환경 보존과 자연보호를 위해서도 앞장 서고 있어요. 어떤 회원들은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며 지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요, 더러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있죠. 교정동우회 차원에서 마약 퇴치 운동에도 참여를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교정 정책과 처우 기법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퇴직한 선배들로서 항상 든든한 마음을 느껴요.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지금처럼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과밀수용의 완화와 인력증원 등도 연차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교정동우회 역시 법률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꺼리는 일부 시선 때문에 현재까지 보조금은 받지 않고 있다고. 다만 '교정실무'에 관한 도서 출판으로 기금을 일부 마련하기도 했다고 한다.

“재정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수익 사업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교정동우회의 법적 공신력이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데다, 기금도 충분하지 않아서 한계를 겪고 있어요. 현재 사업 아이템을 구상 중이긴 하지만, 퇴직 공무원 단체라는 특성상 민간 단체와의 경쟁 및 상충 문제 등 다양한 제약도 있고요. 이에 법무부와 각 교정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중장기 추진 과제입니다.”

결국 송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중장기 과제로 꼽고 있었다. 또 이를 위해 “지자체 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거듭 밝혔다.

### “퇴직·현직 교도관 연결·나눔 위해 일할 것”

교정동우회는 매년 2월에는 전국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해 주요 업무 계획을 확정한다. 송 회장 역시 지난해 2월 취임 당시 “퇴직 교도관의 회원 가입을 확대하고, 지회의 활동 방향을 공익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수익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힘에 따라 현재, 회원 간의 유대 강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기반으로 한 공익사업 확대, 현직 교도관들에 대한 교정동우회 활동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교정동우회의 창립기념일인 매년 11월 4일에는 기념식과 전국 지회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95세 이상 회원들을 격려하고 매년 해오던 불우 수용자 가족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송 회장은 “교정동우회의 회원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교도관으로 일한 후 퇴직한 사람들이다”면서 “연금 생활을 하는 분들부터 귀농·귀촌을 통해 전원생활을 즐기는 분들, 혹은 제2의 직업을 찾아 활동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동우회는 새로운 인연과 소통의 장이 되어 퇴직 후 삶을 더욱 보람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퇴직 교도관들에게 참여를 당부했다.

“교정 정책과 처우 기법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퇴직한 선배들로서 항상 든든한 마음을 느껴요.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지금처럼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과밀수용의 완화와 인력증원 등도 연차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한참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송 회장의 넉넉한 모습이 교정직에 대한 자부심과 후배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듯하다.





# 범죄를 넘어 희망으로: 중간처우 제도로 재범 방지 선도

## 안양교도소

1963년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은 안양교도소는 현재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며, 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인성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도 수용자들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오랜 역사를 품은 안양교도소의 발자취**

‘바로잡을 矯·바를 正’,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교정(矯正)’. 구치소, 교도소 등을 이르는 교정기관은 따라서 단순히 수용자를 가두는 곳이 아니라, ‘삶의 잘못된 궤적을 수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도록 돕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물론 현실은, 일반인에게는 ‘희망이 없는 곳’이고, 교정사들에게는 일면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수용자의 눈빛을 견뎌야만 하는 곳’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꿈꾸기 마련이고, 사람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희망이라는 것은 움트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곳, 안양교도소 역시 오랜 시간, 실낱같지만 묵묵하고 끈둍하게 교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희망’이라는 것을 견고하고 있다.

1912년 9월 3일 서울 서대문에서 ‘경성감옥’으로 문을 연 안양교도소는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이라고

한다. 1946년 4월 7일 마포로 이전 후 ‘마포형무소’로 개칭했으며, 1963년에는 현재 위치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으로 이전 개칭했다. 이전의 이유는 마포지역의 도시 발전과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로 기존 시설의 수용 한계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약 11만 평에 이르는 지금의 자리에서는 총 12개의 부서를 두고, 다양한 장비와 시설로 철저한 방호 및 경계에 힘쓴다. 감시카메라, 라이다 시스템, 드론 등 전자장비와 기관총, 소총 등의 무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주벽과 감시대, 병커, 비상 초소 등 방호 시설물을 운영 중이기도 하다. 물론 수감·포송 등의 보호장비와 교도봉·가스총 등의 보안장비를 보유함으로써 도주·난동·폭행 등의 사고 예방으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출소예정자의 희망 찾기**

안양교도소는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중 ‘집중인성교육 기본교육’은 수행자의 심성 순화와 재범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기수마다 70시간씩 외부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며, 음악치료·미술치료·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수행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분노 조절 및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하여 매월 취업 설계부터 출소 후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는 ‘허그일자리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소예정자들을 위한 사회 정착 취업 설계 프로그램으로 개별 심리검사, 직업 심리검사,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취업특강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출소예정자 약 140명이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그중 약 5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잔형기가 3개월 미만인 출소예정자들을 대상으로는 반기별로 30시간 이상의 취·창업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기쁨과 희망은행 창업교육, 실전 창업교육, 소자본 창업교육, 희망 취업 새출발 지원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4년 기준으로 60시간의 교육을 진행해 약 50명을 수료시켰다.

출소예정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대면 면접 형태의 채용 면접은 다양한 구인업체와 유관기관의 참여로 수시 진행된다. 안양교도소는 채용약정 체결 및 면접이 있을 시에는 출소예정자와의 동행에 기여하고 있다.

취업 연계 직업훈련반으로 지정된 컴퓨터 프로



그래밍 훈련도 있다. 연간 2명을 선발하며, 훈련에 참여한 수형자에게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성폭력 사범, 마약류 사범, 알코올 관련 사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이는 기본·집중·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이처럼 안양교도소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성폭력사범과 마약류사범을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수형자 중간처우 제도, '소망의 집'의 역할**

교도소의 주된 기능은 (법의 기준에서) 죄를 지은 사

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교정·교화에 있다. 그리고 이는 범죄자의 성격을 다양한 방법으로 바꾸고 개선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법을 준수하며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이웃'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게 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출소자가 사회의 낙인과 편견 가운데 평범한 일상을 찾기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출소자 스스로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와 성장을 경주하며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일찍이 형사정책자들이 분석한바, '출소 후 현실사회와의 괴리'가 출소자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한



이유<sup>1)</sup>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바로 이것이 안양교도소가 '소망의 집'을 보듬게 된 연유이기도 하다. 지난 2009년 개관한 '소망의 집'은 수형자가 출소 후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사회에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수형자 중간처우 제도'에 기반한 이곳은 수형자 자치제를 운영하며, 가석방을 앞둔 모범수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들은 바로 옆에 마련된 세차장으로 출·퇴근을 하며 일을 배우는데, 많은 돈은 아니나 출소 후 다소 안정감 있게 정착할 만큼의 자금은 모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이 시설을 거친 출소자 중 재입소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소망의 집'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연합뉴스 기사. (08. 11. 26). <긴급진단> 변모하는 교정시설 (상)안양교도소 '중간처우의 집'. 경기일보

# 117년 세월의 역사에 변화와 가능성의 세계를 심다

## 안양교도소 총무과

1908년 서울 서대문에 건립된 '경성감옥' 시절부터 헤아리면 안양교도소의 역사는 어느덧 117년에 이른다. 현재 안양에 있는 건물에만 한정하더라도 무려 62년, 대한민국의 교도소 중 가장 오래다. 그런 만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총무과의 노력은 촘촘할 수밖에 없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교정 이야기



+ 교정과 사람들



## 조직 운영의 만능키: 비품구입부터 대외 홍보까지

총무과는 회사나 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자산 및 비품부터 사무실 시설에 이르기 전반적 관리에 이 부서는 쉴 틈 없이 움직인다. 계약서 관리, 문서 정리, 보안 관리 등의 일상적인 업무가 모두 총무과의 기본적인 역할에 속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행사의 기획과 운영, 간혹 의전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총무과의 몫이다. 총무과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 유지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 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다.

안양교도소의 총무과 또한 이곳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인사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신규 교정공무원의 채용과 배치, 정기적인 인사이동, 승진 및 평가 업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기도 한다. 동시에, 조직 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한다. 기획·홍보 업무를 맡아 상급기관의 방문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행사, 축제 등 대외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운영을 책임짐은 물론이다.

JANUARY



안양교도소 총무과



민원 처리와 서무 업무 역시 안양교도소 총무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수용자의 불만과 요청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내부 행정 업무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자 애쓴다.

직원들의 급여 및 복지와 관련된 재정 관리 또한 안양교도소 총무과의 몫이다. 수용자들의 형기 계산, 입·출소 일정, 출소 및 이동 등 수용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모든 정보의 문서화를 통해 보안과에 전달되는 것까지 이곳의 손을 탄다는 게 김윤근 교감의 설명이다. 이어 “구매 관리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배분하며, 교정시설 내 자원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를 지원하기도 한다”면서 “안양교도소 총무과는 이처럼 다양한 업무를 꼼꼼히 수행, 교정시설의 운영과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중심축으로서 기능한다”고 김 교감은 덧붙였다.

### 지역 주민과의 소통 위한 꼼꼼한 기획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정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중추적인 역할은 안양교도소의 총무과 내 기획홍보팀이 담당한다.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협력하며, 진행 과정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한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이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것.

주민센터나 단체가 주최하는 지역 축제에 참여할 때면 안양교도소는 교도소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부스를 운영하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센터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조율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세심하게 절차를 마련해 간다. 행사에서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 그중 교정시설 직원들이 입는 제복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은 주민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보안 장비의 사용법을 소개받고, 호송차 내부를 둘러보며 탑승해 보는 것 모두가 생소해 지역 주민들은 이를 특별한 경험으로 접하고 추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안양교도소의 특기할 점은 수용자들의 ‘도자기 제작’으로, 이는 수용자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향한 의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총무과는 이를 심분 활용, 축제 때마다 그 작품을 전시·홍보하며 수용자들의 노력을 복돋아 주고 있다.





**혐오 시설을 넘어서: 수용자 재활과 사회 재통합 노력**

교도소는 종종 '혐오 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 직면하곤 한다. 안양교도소가 지역 축제와 같은 외부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곧 교도소는 단순히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닌, 이들이 재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점'임을 알리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를 두려움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정인들은 교도소는 하나의 '작은 사회'이며, 더 나아가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에 필요한 재활 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는 '변화와 가능성의 세계'로 여기며 살아간다.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수용자들을 방치한다면, 재범률이 높아지고 그 피해는 결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많은 국민들이 교도소를 '혐오 시설'로 여기고 있다"는 통념 앞에서 번번이 힘을 잃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교도소는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며 그 세계를 열어가고자 한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서 총무과 25명의 구성원은 "교도소가 지역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재활과 재통합을 돕는 중요한 기관이다"는 메시지를 오늘도 묵묵히 전하고 있다.

**mini interview**

김에오 과장



교정공무원은 사회방위의 최후 보루입니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처럼 국민이 쉽게 접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내며 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고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김정섭 교감



교도관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넓은 영역을 포괄합니다. 일반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교도관은 일상적으로 여러 과업을 처리해야 하죠. 이는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개인적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은 교도관 업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가 교도소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 과정에도 큰 도움으로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도관'이라는 직업의 매력과 의미는 사무 업무와 현장 업무를 자신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가되는 것 같습니다.



**김보성**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교위

## 목차

- I. 들어가며
- II. 개요
- III. 중국감옥 참관
- IV. 후기



## I. 들어가며

중국 사법부<sup>1)</sup> 산하 중국감옥공작협회의 초청으로, 한국교정학회 방문단과 함께 3박 4일간 중국의 경제 수도라 불리는 상해의 교정시설 중 두 곳을 둘러보았다. 물론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의 약 10배, 960만㎢에 달하는 거대 대륙이기에, 상해의 교정시설 방문만으로 중국의 교정시설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사법부 주관인 이번 초청을 통해서도 중국의 교도소만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기에<sup>2)</sup> 양국의 교정시설 시스템 전반을 이번 출장을 통해 명확히 비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다시 한번 양국의 교정 관련 최신 자료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면서, 후행 연구를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II. 개요

### 1. 중국 감옥관리국 개요

중국 감옥관리국은 중국 사법부 소속의 17개 청·국 기관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법무부 교정본부와 그 역할이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 법무부 교정본부의 경우 교도소와

1) 중국의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법무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Ministry of Justice'라는 영문명을 양국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2) 간수소는 우리나라의 구치소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법부가 아닌 공안부 산하 기관이다.

구치소를 모두 관할하고 있으나 중국의 사법부 감옥관리국은 감옥(우리나라의 교도소)만을 관할하고 있으며 간수소(우리나라의 구치소)는 사법부가 아닌公安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감옥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은 사법부 소속의 '감옥경찰'로 구분되고, 현재 중국 내 감옥은 약 60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sup>

〈중국 사법부 내부기관 조직도〉



3) 간수소의 경우 현(縣)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약 2,0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 2. 중국감옥의 관련 규정

중국감옥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1994. 12. 29.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감옥법(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으로 ‘형벌의 올바른 집행, 범죄자 처벌 및 교화, 범죄 예방 및 감소<sup>4)</sup>를 그 목적으로 하며, 사형집행유예 2년<sup>5)</sup>,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외 상기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 범죄자가 형의 집행을 위해 인도되기 전에 남은 형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구치소에서 대리 집행(제15조)
- 수용 시 수용자의 신상 및 소지품을 엄격히 검사해야 하며, 생필품이 아닌 물품의 경우 교도소 보관, 가족 반환 또는 금지품 몰수(제18조)
- 여성수용자의 경우 여성 인민경찰(감옥경찰) 직접 검사(제18조)
- 수용자는 자녀를 감옥에 복역시킬 수 없으며, 감옥은 수용사실을 수용자의 가족에게 반드시 통지(제19조, 제20조)
- 무기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복역 중 회개 또는 공로<sup>6)</sup>를 세운 경우 교도소 평가 결과에 따라 형 감경(제29조, 임의적 규정)
- 수용자가 법률이 규정한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도소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법원에 가석방을 제안하고, 법원은 가석방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검토 및 결정<sup>7)</sup>(1개월 연장 가능, 제33조)
- 성인 남성, 여성 및 미성년 수용자를 별도로 구금해야 하며, 여성 및 미성년 수용자의 개조(改造)은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여성수용자는 여성 감옥

4) 중화인민공화국감옥법 제1조 : 이 법은 형벌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범죄자를 처벌 및 개조하며 범죄를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第一条：为了正确执行刑罚，惩罚和改造罪犯，预防和减少犯罪，根据宪法，制定本法.)

5) 중국 사법제도 중 하나로, 사형선고 뒤 2년간 수형자의 반성 여부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제도

6) 제29조 중 ‘공로’에 해당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타인의 중대한 범죄활동을 저지하는 것
- 2) 교도소 내외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신고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 3) 발명 및 창조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는 경우
- 4)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경우
- 5) 자연재해에 대처하거나 중대사고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
- 6) 국가 및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7) 가석방이 된 수용자는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기관(중국 사법부 조직도 참조)이 시행하는 지역사회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역사회 교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가석방 취소를 건의할 수 있음



경찰이 직접 관리하여야 함(제39조, 제40조)

- 인민무장경찰대는 교도소의 무장경계를 책임지고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제41조)
- 수용자는 타인과 통신을 할 수 있으나 편지를 수수하는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함. 단, 상급기관과 사법기관에 보내는 편지는 검사할 수 없음. (제47조)
- 형기의 1/2 이상을 집행한 수형자 중 공적이 있고, 수용생활태도가 성실하며, 출소 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교도소를 떠날 수 있음(제57조)
- 미성년 수용자가 18세가 되었을 때, 남은 형량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남은 형량을 집행하기 위해 미성년 수용자 관리소에 잔류할 수 있음(제76조)

### 3. 중국감옥공작협회 개요

〈중국 사법부 산하단체 조직도〉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法治宣传中心 (법치홍보센터)	全面依法治国研究中心 (전면법치국연구센터)	信息中心 (정보센터)
机关服务中心 (기관서비스센터)	燕城监狱 (연청감옥) <sup>8)</sup>	法律援助中心 (법률지원센터)
预防犯罪研究所 (범죄예방연구소)	法制日报社 (법제일보사)	法律出版社有限公司 (법률출판사 유한공사)
中国法治出版社 (중국법치출판사)	中华全国律师协会 (중화전국변호사협회)	中国公证协会 (중국공증협회)
中国监狱工作协会 (중국감옥공작협회)	中国司法行政戒毒工作协会 (중국사법행정마약중독재활사업협회)	中央司法警官学院 (중앙사법경찰관학원)
司法协助交流中心 (사법협력교류센터)	国家司法考试中心 (국가사법시험센터)	中国法律援助基金会 (중국법률원조기금회)
司法协助交流中心 (사법협력교류센터)	司法鉴定科学研究院 (사법감정과학연구원)	中国法律服务(香港)有限公司 (중국법률서비스(홍콩) 유한공사)
中国法律服务(澳门)公司 (중국법률서비스(마카오) 공사)	司法部港澳台法律培训交流中心 (사법부 홍콩·마카오·대만 법률교육교류센터)	中华全国人民调解员协会 (중화전국인민조정위원회)

중국감옥공작협회는 중국 사법부의 산하단체 중 하나로, 중국 사법부는 17개의 청·국 기관 외에도 24개의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사법부 산하단체의 조직도는 위의 표와 같다.

중국감옥공작협회는 韩亨林(한형림) 회장을 중심으로 7명의 부회장으로 임원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다르지만) 일본과 유사하게 협회와 학회의 업무를 모두 총괄하고 있어, 국가 간 교류와 학술 세미나뿐만 아니라 사법부 등으로부터 교도소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연구, 이론서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감옥공작협회 임원구성

- 회장 : 韩亨林
- 부회장 : 邵雷, 张金桑, 李豫黔, 何平(兼秘书长), 王平, 时延安, 史殿国

#### 중국감옥공작협회의 역할

- 당의 기본이론, 노선, 방침 연구 및 회원 조직, 전문자질 향상
- 학술세미나 개최 및 연구 결과 교류
- 사법부 및 관련 부서 위탁 교도소 업무 교육, 연구, 자문 수행
- 교도소 입법 업무에 대한 연구, 자문, 논증 활동 참여
- 각 국 및 각 지역 학술 교류, 우호 교류 활동 추진
- 회원 대상 교도소 이론 연구 인재 양성 및 포상
- 협회 회보 제작 및 감옥학 이론 전문서 및 자료 출판 등

〈중국감옥공작협회 홈페이지 내 게시된 활동사항〉



한국교정학회의 협회 방문

학술교류 및 실무회의 개최

허난성 자오쥬 교도소 현판식

8) 일반적으로 감옥은 중국감옥관리국에서 관리하나, 연청감옥(燕城监狱)의 경우 사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속 행정기구이다.



중국감옥공작협회 임원단 합동 단체촬영

상해시감옥학회 임원단 합동 단체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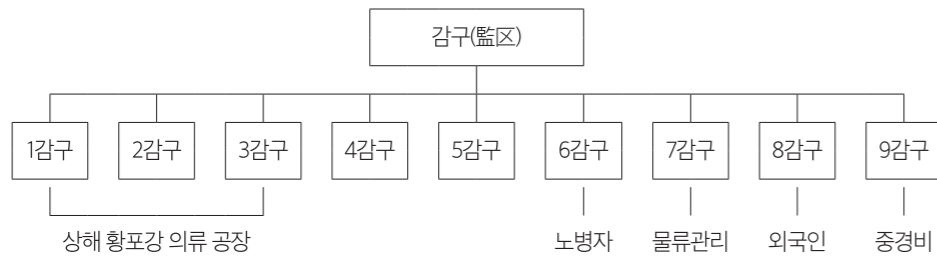
### III. 중국감옥 참관

#### 1. 상해 청포(青浦)감옥 참관

1994년 상해 청포(칭푸)구에 설치된 청포감옥은 부지면적은 약 260무(亩)<sup>9)</sup>로, 우리나라의 여주교도소와 유사한 면적을 지니고 있으며 600여 명의 직원과 2,700여 명의 수용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청포감옥은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사범을 수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重)경비시설에 해당하는 교도소로써, 상해 소재 감옥 중 유일하게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고, 감구별로 작업수용자, 환자(병동), 수용동봉사원, 외국인 등으로 구분된 총 9개의 감구(관구)와 경비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종합류(综合类), 업무류(业务类), 부대류(队伍类), 보장류(保障类) 총 4개의 부류(类)로 구분하여 행정, 지휘, 감독, 교육노동, 노조, 총무 등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감구(관구)의 구성과 감옥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9) 무(亩)는 토지면적을 세는 중국의 단위로 1무는 약 666㎡로, 260무의 경우 약 52,400평이다.  
※ (참고) 서울구치소 : 약 131,800평, 안양교도소 약 112,300평, 여주교도소 51,400평

#### <청포감옥 조직도>



9) 무(亩)는 토지면적을 세는 중국의 단위로 1무는 약 666㎡로, 260무의 경우 약 52,400평이다.  
※ (참고) 서울구치소 : 약 131,800평, 안양교도소 약 112,300평, 여주교도소 51,400평

청포감옥은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변형시키는 모범적이고 과학적인 실험기지 및 중국 교도소의 문명화된 창구(依法管理的模范, 科学改造罪犯的实验基地和中国监狱的文明窗口)’로 기관의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중국 사법부 범죄예방연구소의 과학연구기지 역할을 하면서 상해시 감옥국과 감옥학회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과학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해시 최초의 ‘사법부 현대 문명 교도소’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이 감옥관리 모델을 구축하였다.

- ‘평가, 관리, 교정 및 복귀’ 통합시스템을 통한 범죄자 교육제도 구축 및 강력범죄자 교육을 위한 운영모델 모색
- 산업, 학업과 관련된 수용자 기술 훈련 등을 통해 ‘처벌 및 인간 개조’를 중심으로 수용자 사회복귀능력 향상 및 재범방지 유도
- 태극권 등 중국의 대표 전통문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문화인으로서의 정신 함양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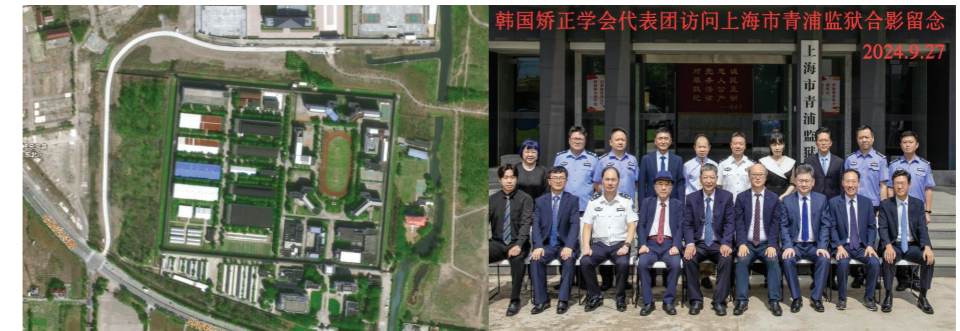
또한, 상해 유일의 외국인교도소인 청포감옥은 1996년부터 외국인 범죄자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전담 감구(監区)인 8감구를 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 30여 개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 100여 명이 수용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적의 수용자는 총 11명이 수용되어 있다.

한편, 청포교도소의 수용자 등급별 처우는 ‘범죄 등급 처우에 관한 규정(사법부)’ 및 ‘범죄 등급 처우에 관한 시행규칙(상해감옥관리국)’에 근거하며, 본 규정을 기반으로 아래의 3단계 조직구조를 통해 범죄·형벌 유형, 형기, 개조(교화)성과 등의 상황에 따라 수용자 점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용자의 활동범위, 접견, 생활 대우, 문화 및 스포츠활동 등에 차이를 둔다.

- 범죄자 등급 처우 관리 조직 구조(3단계)**
- 상해감옥관리국 : 등급처우위원회를 설치하여 상해의 전 감옥을 대상으로 수용자 등급 및 작업 지도·감독 담당
  - 감옥 : 교도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감옥 등급처우작업반을 설치하여 등급처우작업의 조직 및 주요 사항 연구 담당
  - 감옥 내 감독부서 : 감독 등급처우작업반을 설치하여 감독구역 내 범죄자에 대한 등급처우의 구체적인 시행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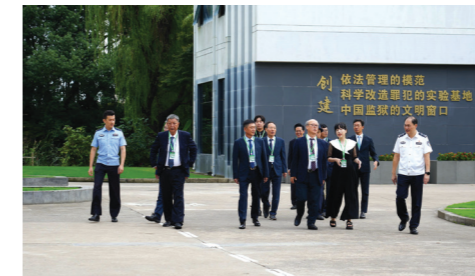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수용자 처우 수준을 엄격관리수준, 감독수준, 일반관리수준, 관대관리수준 총 4단계<sup>10)</sup>로 나누어 수용자가 각 등급의 평가 기준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등급으로 평가<sup>11)</sup>하나, 규율 위반, 추가 사건 접수 등 수용자에게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부서 등급 처우 작업반이 즉시 평가절차를 통해 수용자 처우 등급 강등과 같은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청포감옥 관련 사진**



청포감옥 전경

청포감옥 사무청사 앞 단체사진



청포감옥 정문 앞



청포감옥 박물관



청포감옥 수용자 작업(목공예)공장



양국 선물증정식

10) 우리나라 형집행법 제74조(경비처우급)과 유사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1) 처우등급평가는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며, 평가 절차는 ‘감옥경찰이 감독부서 등급 처우 작업반에 평가의견 제출 → 감독부서 2/3 이상의 동의 및 감옥 등급 처우 작업반 보고 → 감옥 등급 처우 작업반 승인 및 수용자에게 공표(다음 달부터 효력 발생)순으로 진행된다.



'02년 한국교정학회 기증 물품

'05년 한국교정학회 기증 물품

## 2. 상해 티란차오(提篮桥)감옥 참관

티란차오감옥은 1903년 5월 상해시 흥커우구에 최초 설립된 감옥으로, 당시 전국 유일의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교도소였으나, 2024년 7월 상해시 청포(칭푸)구 소재 청포감옥 인근으로 신축·이전하였다.

설립 당시 영국공사에서 설계를 낙찰받아 1903년 개청하였으며, 최초 4층 감구 2개동, 480개 수용거실, 조리실, 사무실, 의료소 등으로 10무(약 2,000평)의 면적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후 증·개축하여 약 21,200평으로 확대되었으며, 1945년 '상하이 인민법원 감옥'과 1951년 '상하이 감옥' 이후 1995년 5월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도 있다.

당시 5m가 넘는 담장과 8,000여 명에 달하는 수용자로 '극동 제일의 교도소'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2차세계대전 종료 이듬해인 1946년 초 연합군과 미군이 티란차오감옥에 중국 내 최초의 일본 전범재판소를 설치하였고 이에, 티란차오감옥은 2014년 '상해 항일 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다.



옛 티란차오 감옥 전경



옛 티란차오 감옥 정문

한편, 티란차오감옥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정사업은 다음과 같다.

### '마음챙김' 요법 교정 프로그램

- 행동인지 요법을 기반으로 월 1~2회 강의를 실시하며, '마음챙김 지도 + 마음챙김 연습 + 수업 공유 + 방과 후 숙제를 중심으로 이전 이후 새롭게 진행되는 8주 정규 교육 과정

### 폭력예방 교정 프로그램

- 태극권, 연극, 서화모임 등 다양한 문화 및 교육활동을 통해 수용자가 직접 문제를 분석하고 다음 교화계획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 올해 7월, 3일간 폭력예방 사업 추진 교육 과정을 주관하여 3명의 강사가 6개의 과정을 이수하고 13개 부서의 담당 감옥경찰과 감독구역의 심리상담원이 교육에 참여

### 재활훈련 교정 프로그램

-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5행 강화운동'과 '감각 훈련'을 진행하며, 현재 9회차에 걸쳐 5개 활동에 70여 명의 수용자가 참여함
  - \* 상해중의학대학 부속 웨양병원에서 연구·제작한 운동 프로그램
- 신장폐활량, 고관절 유연성, 모래판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자극하여 정신질환 수용자의 대인관계 능력, 신체 조정 능력, 언어 인지 능력 향상 등에 기여

### 심신평형술 교정 프로그램

- 5~6개의 노인·장애인 수용구역을 선정하여 심신평형술 교정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훈련에 참여할 감옥경찰을 선발하여 주 1회 집단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음악치료 심신교정 프로그램

- 프로그램 대상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신안예술단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심신교정 프로젝트로, 명상기법, 음악요법, 한방오음요법 등을 통해 수용자 중 음요법사와 명상지도사단을 양성하고, 작품 '만다라창송'을 제작하여 심신상태 개선

### 티란차오감옥 참관 관련 사진



티란차오감옥 이전 예정 부지

티란차오감옥(이전 후)



(위)티란차오감옥 (아래)청포 감옥

티란차오감옥 관계자 접견



티란차오감옥 정문 입구

수용자 나뭇잎 공예 전시 작품



수용자 연극 관람

티란차오감옥 단체사진

## IV. 후기

### 1. 중국감옥공작협회 접견 후기

중국감옥공작협회(이하 '협회')는 우리나라 교정공제회(구 교정협회)와 한국교정학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국교정학회와의 협정으로 수십 년간 격년으로 상대국 방문을 통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으나, 2019년 4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교류가 일시 중단되었고, 이후 엔데믹과 함께 협회의 초청으로 교류가 재개되었다.

또한, 상해 소재 감옥 참관을 위해 상해감옥학회와 상해기율검사위원회 소속 관계자들과도 함께 동행하였으며, 방문 직후 협회에서는 한국교정학회의 중국 방문 이후 사법부 홈페이지 내 협회 게시판에 한국 방문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 中国监狱工作协会接待韩国矫正学会代表团 (한국교정학회 대표단을 맞은 중국감옥공작협회)

사법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감옥공작협회 초청으로 2024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한국교정학회 오경식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행 6명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학술교류를 하러 왔습니다.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한형림 중국교도소공작협회 회장을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한국교정학회 대표단은 상하이 청포감옥과 상하이 티란차오감옥도 참관했습니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 교정 전문 학자와 교정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감옥 시설, 감옥 조직 구조, 범죄자를 개조하는 수단 방법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감옥 소개와 감옥 현장 방문을 들은 후 중국 감옥 범죄자 개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중국 감옥의 엄격하고 질서 있는 범죄자 관리를 칭찬했습니다. 중국에서 본 경험을 한국으로 가져와 범죄자 개조와 관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중국에서 받은 환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국감옥공작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인 허핑 동지는 한국교정학회 대표단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우리나라의 교정공제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사법부의 산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전·현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 외에도 학회 업무(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등), 국제교류 업무, 이론편 발간 등 교정공제회보다 활동 범위가 넓다.<sup>12)</sup>

이로 미루어 보면, 중국과 일본은 협회에 보다 많은 활동과 권한을 위임하여 협회의 타당성을 부여하였으나, 우리나라 교정공제회의 경우 교정공무원의 복지증진에만 다소 한정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 교정본부의 경우 교정공제회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지는 않았으나 교정본부에서 직접적으로 국제협력을 주관하고, 학회 등 학술사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면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물론 각 운영 방식에 따른 장·단점은 반드시 존재하기에, 어떠한 운영 방식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중국, 일본 외에도 세계 각국의 사례를 추가 수집 후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 2. 중국감옥 참관 후기

이번 중국 방문 시, 상하이 소재 청포감옥과 티란차오감옥을 방문하였으며, 교도소 운영 방식은 양 감옥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운영방식과도 전반적으로 유사하였으나, 일부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경계근무 환경

정문 통로 내 사무실에서만 근무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3명의 직원이 영국의 근위병과 유사한 형태로 정문 출입구 앞에 서서 감옥 계호를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감옥경찰 외에 군인도 함께 경계근무를 서며, 정문 통로 내 좌우 양쪽에 각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sup>13)</sup>

입장은 정문 앞 3열 중대 정렬 → 정문계호자 1차 신체검사 → 정문 출입문 개방<sup>14)</sup> 후, 통로 내 바닥점 위 3열 중대 정렬 → 정문계호자 2차 신체검사순으로 실시하였

12) 중국에도 상해감옥학회와 같이 학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중국감옥공작협회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교정협회가 학회, 국제교류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13) 감옥경찰과 군인이 사용하는 비상대기숙소도 감옥 외부에 양측으로 구분

14)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양 문을 동시에 개방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차량출입용 정문과 유사한 형태의 정문을 이용하여 입장

는데, 감옥경찰(교도관) 외에도 군인이 함께 외곽 경계근무에 참여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출입구 앞에서 구령에 맞춰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중국감옥의 수용질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다만, 정문 통로 내 사무실 외에도 출입구에서 정적인 경계근무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질서확립이라는 감옥에 대한 이미지 조성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당연하게도 직원의 근무 피로도 상승 및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CCTV 등을 통하여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 수용환경과 수용자 처우

참관한 모든 수용동의 수용 거실에 1~2층 침대가 구비되어 있었으며, 수용률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수용동에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수용거실 입구에 부착된 수용자 인적사항에 수용번호만 기재가 되어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사진, 이름, 형기, 수용번호, 죄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며, 모든 수용자들이 접견, 진료 등의 사유로 수용동 복도를 거닐 게 되면 해당 수용거실의 수용자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용동 입구에 수용자절차제도 안내게시판을 설치하여 해당 수용동 내 모든 수용자들의 가석방 순위, 수용점수, 수용자별 감점사항 및 사유를 수용자들이 직접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었으며, 수용자별 수용카드를 지급하여 영치금 조회, 진료접수,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수용동 입구에 기기를 설치해 두었다.

이외에도, 수용동 복도에 인권, 법률, 고충 등과 관련된 여러 전공과목 박사에게 비밀이 보장되는 우편연락함이 설치되어 있고, 감옥관리국 홈페이지에 수용자 가석방 결과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여러 제도의 운영실태로 미루어 본바,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 알권리 충족, 정보공개 등 중국의 우수한 수용 처우 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5)</sup>

한편, 여러 수용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감옥경찰의 근무복에는 계급장 외에 성명 대신 기관번호와 직원별 번호가 조합되어 있어 수용자가 직원의 이름을 알 수 없도록 제작하여 직원 개인정보를 보장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더욱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

15) 다만, 직접 참관한 청포감옥과 티란차오감옥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므로 중국의 지리와 사회적 환경 특성상 모든 교도소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최근 KBS와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체포 급증에 따라 구금 시설 만원으로 12명 정원의 수용동에 20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더라도 중국 내 수용자의 처우와 수용환경과 관련하여서는, 간수소(구치소)의 환경과 중국 내 다른 지역의 교도소 환경에 대한 많은 사례수집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된다.

### 수용자 문화교육

교도소 내 작업장으로 '수용자 문화교육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작업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웹툰 작업'과 유사하게 태블릿을 활용하여 10명 내외의 수용자가 애니메이션 그림에 색채를 입히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중국의 문화가 담긴 계란껍질 공예, 그릇 공예, 목공예 등을 통해 공예품을 중점적으로 제작하고 있었으며 수용자들의 공예품은 중국 내 공예품 대회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는 인근 문화예술관과 협업하여 수용자들이 제작한 공예품을 제공하고, 판매하여 일부 수익금을 수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연극을 '문화교육'으로 지정하고 중국 내 모든 수용자에게 연극을 가르쳐 축제, 행사 등에 동원되기도 하며, 티란차오감옥 방문 당시에도 약 10분간 실제 중국의 수용자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 취사장 환경

외국인 전담 교도소인 청포감옥 방문 시, 취사장을 참관하였는데, 외국인 전담이라는 특성에 맞게 국가와 종교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식단을 확인<sup>16)</sup>할 수 있었고, 취사장의 경우 입구에 식품검사실이 구비되어 있어 식재료 등에 대한 식품검사를 1차적으로 실시한 후 조리를 진행하며, 취사장 수용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한편, 김밥, 에그타르트, 해물파전, 햄버거, 케이크 등 전시된 음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품질 또한 굉장히 우수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국 국민들의 식사보다 더 양질의 식단을 선보이고 있어 다른 중국 교도소의 실제 환경을 재확인하여 비교군 확보가 필요하다.

## 3. 결론

행정 체제는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지리적·문화적 교류 등 영향으로, 교정행정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체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수용자의

16)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영치금을 내고 원하는 메뉴를 고를 수 있음



개인 카드를 이용하여 진료 접수, 영치금 조회, 도서 대출 등이 가능한 기기의 활용이 인상적이었으며, 수용동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수용자절차제도 게시판을 활용하여 수용자의 수용생활 점수와 가석방 순위를 공개하고, 실제 수용자들의 현재 재판 및 청구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처리담당 직원이 게재되어 있는 부분은 수용자의 수용환경과 권리 보장 측면에 있어서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 교정본부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모두 관리하고 있으나 중국의 사법부는 우리나라 교도소에 해당하는 감옥만을 관리하고 있어서, 사법부를 통한 중국 교정기관 방문으로 우리나라 교정제도를 중국의 교정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하기는 어려우며, 양국 교정제도의 정확한 비교와 선진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이외 여러 지역의 교도소와 중국의 공안부 소속의 간수소(구치소)에 대한 비교·분석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마약류사범 대상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의 타당화 연구(상)



**정여경**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 교감

## 목차

- I. 서론
- II. 중독치료에서 회복단계평가
- III. 연구방법
- IV. 결과
- V. 논의

참고문헌

## 국문요약

마약 중독은 만성재발장애인 동시에 뇌장애로 설명될 정도로 다른 중독에 비해 재발은 쉽고 회복이 어려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무엇이 마약중독 치료 예후에 도움이 되는가는 치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무작위로 선정된 국내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369명을 대상으로 한 중독재활치료에서 마약류사범 대상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의 요인구조를 분석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회복과정으로서의 변화단계인 전속고, 숙고, 실행, 유지 요인으로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척도의 적합도와 4요인 구조를 지지하였다. 신뢰도는 전체 .83, 전속고 요인은 .82, 숙고 요인은 .79, 실행 요인은 .93, 유지 요인은 .81로 나타났다. 회복단계가 상승할수록 단약자기효능감과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열망 척도의 인식 및 행동실천 요인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 및 전속고(중독문제를 부인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요인)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가 원척도와 같이 네 가지 회복단계를 측정하며 치료의 유지 및 결과 예측의 유용한 척도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의 중독특성을 탐색하고 회복가능성을 예측하여 마약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마약 중독, 마약류사범, 중독재활치료, 변화단계, 회복단계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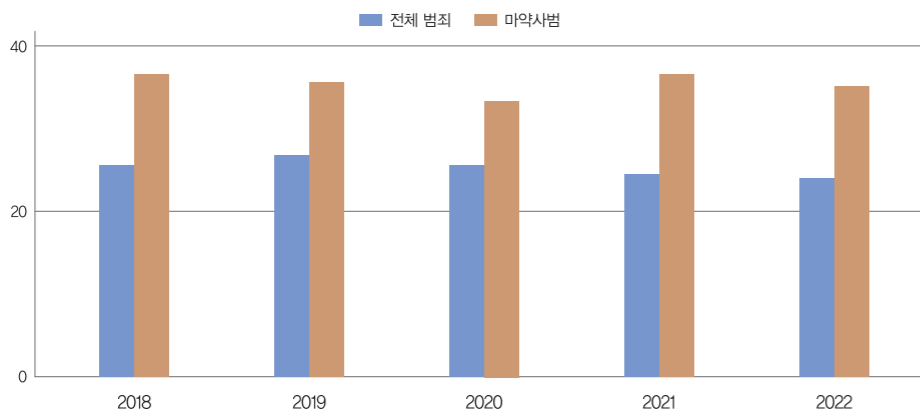




## 1. 서론

2022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형자의 재범율은 23.8%인 한편 마약류사범의 재범율은 36.3%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2018년에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마약류사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법무부, 2023).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 또한 매년 30%를 넘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사범 재범률 35.3%로 전체 범죄의 재범률 25.18%에 비해 지난 5년간 매년 높았다(대검찰청, 2023; 법무부, 2023).

〈그림 1〉 최근 5년간 전체 범죄와 마약사범 재범률 비교(2018~2022년)



자료: 법무연감(법무부, 2023: 672-675)의 재구성  
 +재범률(3년 이내 재범율) = (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범역자수 ÷ 4년 전 출소자수) × 100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대상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재활치료 이수명령이 병과된 마약류사범은 범죄횟수, 재범위험성, 이수명령시간 및 재활의지 등을 고려하여 기본·집중·심화·회복이음 과정 중 한 가지 이상에 참여하게 된다(교정본부, 2023; 법무부, 2024). 법무부는 이미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에 대한 개입의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면서 2016년 심리치료과를 신설하여 중독재활센터 설립 및 마약류사범 치료과정을 개선하였으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18), 2023년에는 법무부 내 마약사범재활팀 신설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전담재활교정시설 설립 및 확대, 전문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확대, 출소 후 지역사회연계 등 관련 정책 마련과 집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법무부, 2024).

〈표1〉 마약류사범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현황(2017~2022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94	788	773	386	494	652
기본과정	574	648	610	265	337	481
집중과정	101	113	125	69	110	131
심화과정	19	27	38	52	47	40

자료: 교정통계연보(교정본부, 2023: 164)의 재구성, 회복이음 과정은 2023년 시범운영 및 2024년 정식운영(법무부, 2024)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마약류 범죄 및 마약류사범의 재범이 증가하는 것은 마약류 물질이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 및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서 여러 물질관련중독장애 중 마약 중독은 매우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고려되고 있다. 실제로 마약 사용자는 알코올 중독 환자에 비해 불법 행위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마약 중독 환자의 치료 예후가 알코올 중독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Weisner, 1992; Brower, Blow, Hill, & Mudd, 1994; Field, Adinoff, Harris, Ball, & Carroll, 2009).

중독의 가장 큰 피해는 '자기통제력의 상실'이다(김교헌, 2007). 특히 마약중독자는 신체적·심리적으로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약 사용행동 중단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전문가에 의한 재활 치료 후에도 자기통제를 통해 스스로 치료 효과를 유지하기보다 자조모임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최미경, 2022; HOPE REHAB Thailand, 2024).

또한 마약류사범은 자신의 문제가 누적되어 사회적, 직업적, 또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기 전까지 치료 서비스를 찾지 않는 은폐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EMCDDA(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의 2014년 보고서는 수많은 헤로인 사용자들이 HIV에 감염되어 유럽 전역의 공공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사법체계 내 치료적 개입은 강점을 지닌다.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마약류사범들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김은경, 2005; 박성수/김우준, 2010), 우리나라와 같이 마약류 사용을 불법으로 처벌하는 경우 마약 중독자들이 형사사법체계에 적발된 후에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신수경, 2014; 신선희, 2022). 특히 교정시설은 중독 상태가 활발한 시기의 마약류사범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하다. Falkin 등(1992)의 연구에서 집중적인 교정시설 내 치료 프로그램이 이들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마약류사범의 재발과 재범은 매우 쉬운 반면 치료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의 치료재활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내 마약중독 치료의 효과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II. 중독치료에서 회복단계평가

본 연구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2016년 국가정책연구에 따르면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마약류사범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 및 마약으로 인한 생산성의 감소 등 경제적 효용의 감소, 마약으로 인한 형사사법비용 등 약 1,705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박성수, 2018),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마약이 악용될 만큼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었음을(SBS, 2023)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연구에서 중독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한 비용으로 최소 10~20배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김남희/서정민, 2016; 중앙일보, 2022). 또한 치료 효과 증진을 위해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평가도구를 통해 마약 중독자의 회복에 대한 태도, 신념, 정서,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치료 결과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중요한 잠재적 요인이라고 하였다(김은경, 2005; Williams, Horton, Samet, & Saitz, 2007). University of Rhode Island Change Assessment(URICA)는 Prochaska와 DiClemente (1983; 1986)가 제안한 변화단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중독재활치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척도 중 하나로 전숙고, 숙고, 실행, 유지의 네 가지 하위 요인을 측정한다. 측정결과를 통해 치료자는 마약 중독자가 드러내는 회복단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회복단계가 치료 결과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예측하여 치료계획을 세우고 재활을 돕는다. 변화단계 모델은 중독 치료 과정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Prochaska, DiClemente, 1983; Prochaska, DiClemente, Norcross, 1992; Prochaska, Velicer, & Redding, 2005). 중독의 과정이 어떻게 발전하고, 중독자들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각 단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므로 중독 치료 현장에서 활용이 쉽고 유용하다. 중독에 있어 회복은 일련의 단계(전숙고, 숙고, 준비, 실행, 유지)를 거쳐 진행된다. 전숙고 단계의 중독자는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고 삶의 어려움에 대해 남 탓을 한다.

숙고 단계의 중독자는 종종 삶의 변화를 희망하지만 명확한 계획은 없다. 준비 단계의 중독자는 변화의지를 보이고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실행 단계의 중독자는 회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행동을 고치려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유지 단계의 중독자는 회복을 일상생활에 통합하고 건강한 행동 패턴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변화 단계를 통한 회복이 선형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비선형 진행이 더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종종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선형적인 순서로 회복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단계로부터 낮은 단계로 후퇴하기도 하고 단계들을 몇 번씩 반복하기도 한다(DiClemente & Hughes, 1990). 회복은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빠르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마약 중독자의 회복 체험에 관한 연구들에서 몇 년 동안 전숙고 단계에만 머물다가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갑작스럽게 실행 단계로 상승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강성례, 2017; 윤현준/임해영/이남경, 2021; 최미경 2022). 이 치료 모델에 따르면 잦은 재발과 후퇴로 회복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마약류사범의 치료 과정을 치료자와 내담자 모두 희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으며, 각 회복단계에 대응한 적합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마약류사범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URICA는 변화단계를 각각 8개의 항목으로 측정하는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중독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의 회복준비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각 변화단계 내 또는 각 변화단계 범주 간에 식별되는 미묘한 회복태도 차이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었다(McConaughy, prochaska, & Velicer, 1983; Dozois, Westra, Collins, Fung, & Garry, 2004).

원래 변화단계는 5단계이지만 URICA는 전숙고, 숙고, 실행, 유지의 4단계만 측정한다. URICA의 최초 개발과정에서 다섯 단계 중 준비 단계가 숙고와 실행 단계 요인과 대다수 겹쳐 별개의 단계로서 측정할 수 없었으며, 준비단계에서 중독자는 회복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의사결정의 순간은 결정하기까지의 숙고의 기간 및 결정 후 회복실행으로 나아가는 기간에 비해 짧아 단계를 따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제외되었다(McConaughy, Prochaska, & Velicer, 1983).

URICA가 개발된 이후 다양한 임상 장면과 알코올 및 마약 사용자 집단에서 타당성이 검증되었지만, 국내 교정시설 내 치료 현장에서 URICA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사범들에게 적합한 요인구조를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RICA가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의 회복단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마약류사범 대상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 for Drug

Offenders: URICA-DO)를 개발하고자 하였고, 형사사법체계 내 중독재활치료 장면에서 URICA-DO의 활용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칙도 URICA를 기반으로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마약류사범 대상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URICA-DO)는 원칙도와 동일하게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는가? 둘째, URICA-DO는 수용 가능할 만한 신뢰도를 보이는가? 셋째, URICA-DO는 구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를 보이는가?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단계가 상승할수록 단약자기효능감은 상승할 것이다. 둘째, 회복단계가 상승할수록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열망 척도의 인식 및 행동실천 요인 모두 상승할 것이다. 셋째, 우울·불안·스트레스는 회복단계와 부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넷째, URICA-DO의 전속고(중독문제를 부인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요인)은 다른 세 요인들과 부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3개 교정시설에서 실시했던 마약류사범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중 무작위로 추출된 369명의 측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4.22세(SD=11.41세)였으며 범죄자의 특성상 대다수(91.3%)는 남성이고, 8.7%는 여성이었다. 마약류사범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는 치료 내용을 이해하고 집단 내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므로 대상자 선정 시 사전 면담을 통해 인지능력, 정신병력, 질병력 등 프로그램 이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연구의 시행 전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비밀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언제든지 참여 의사 철회가 가능함을 알린 후, 연구 참여 및 자료 분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 2. 연구절차

URICA 척도는 UMBC(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HABITS Lab에서 제공하는 공공재로 사용 허가를 받거나 사용료 지불 없이 척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 사용될 한국어판 척도를 마련하기 위해 URICA의 문항이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에게 적절한지 번역 및 감수 과

정을 거쳐 24개 문항을 번안하였다. 척도 문항의 번안은 두 명의 임상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임상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임상가와 수년간 임상심리학 분야 번역 경험이 풍부한 임상가가 각각 독립적으로 문항을 번안하였다. 이후 국내 심리학관련 서적 번역가에게 번역 내용이 수용자들이 이해하는데 있어 대상자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는지 그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받았다. 또한 번역본을 다시 영문으로 역번역을 실시하였고 국내에 활동 중인 통역가를 대상으로 하여 번역본과 역번역본을 비교하여 원문의 내용이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독심리 및 임상심리전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정현장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최종 번안문항을 완성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국 43개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마약류사범 중 기본과정을 포함한 전체 마약류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수용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자가 연구의 취지를 구두로 설명하고 자신의 설문 사용해도 좋다는 의사를 밝힌 자에 대해 서면동의 과정을 거쳤다. 최종 번안 24문항의 검사가 포함된 설문은 마약류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 시작단계에서 실시되었다. 교정시설의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 일정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먼저 표집된 샘플 중 무작위로 약 100부의 설문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한 응답자의 설문지는 제외하고 89명의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수집한 약 400부의 설문지 중 280명의 설문결과를 무작위 선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관련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 3. 평가도구

##### 1) 회복단계척도(University of Rhode Island Change Assessment: URICA)

이 척도는 총 32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로 마약사범의 회복 준비정도, 프로그램 및 치료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Rhode Island 대학에서 개발되었으며, 현재 여러 나라의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타당화 과정을 거쳐 사용되고 있다(McConaughy, Prochaska, & Velicer, 1983). 우리나라 전국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DiClemente와 Prochaska가 제안한 변화단계에 따른 중독회복 과정을 설명한다.

회복단계척도는 UMBC HABITS Lab에서 제공하는 32문항, 28문항, 24문항 버전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4문항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에서 14점이다. 28문항 버전은 최초개발 시부터 채점에 포함되지 않았던 4, 9, 20, 31번 문항을 제외하였고, 24문항 버전은 문항분석을 통해 요인적재가 잘 되지 않는 1, 2,

3, 6문항을 추가로 제외함으로써 Mander 등(2012)이 재타당화하여 회복단계를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Tambling & Johnson, 2019).

### 2) 단약자기효능감 척도(Drug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본 연구에서는 DiClemente 등(1994)이 개발하고 김성재(1996)가 번역, 김용진(1998)이 약물중독자에 대해 변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물질 사용이나 건강 행동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을 평가한다. 총 20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로 '매우 자신없음'에서 '매우 자신있음'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단약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본다.

자기효능감은 단약과 같은 미래의 과제 수행에 대한 매개요인으로써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의 지각된 능력을 개념화한다. 개인의 적절한 동기와 대처 기술 유무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행동의 지속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Bandura & Adams, 1977).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값은 .97이었다.

### 3) 약물용 한국어판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열망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for Drug Dependents: K-SOCRATES-D)

마약류사범의 변화준비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국내에서는 Miller 등(1996)이 개발한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 열망 척도(SOCRATES)를 흔히 사용하며(전영민, 2005; 김지윤/강지연/임무영/금명자, 2015), 본 연구에서는 신수경(2014)이 국내 흡입제 의존자, 메스암페타민 의존자, 대마초 의존자 등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K-SOCRATES-D를 사용하였다.

행동실천, 인식, 양가감정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약물사용 변화 과정에서의 행동 실천 정도, 자신의 약물사용 문제를 인정하고 변하지 않으면 해로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의 정도, 자신의 약물사용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총 19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인식 요인의 내적일치도는 .85, 양가감정은 .74, 행동실천은 .93으로 양호하였다.

### 4) 한국판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 DASS)

DASS는 1998년에 Antony 등이(1998)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하위 요인별 12개 문항 총 42개 문항을 개발하면서 전체 42문항과 21문항의 단축형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후 단축형만으로 여러 국가 및 다양한 임상군 및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Henry & Crawford, 2005; Trauer

et al., 2007; Sinclair et al., 2012), 우리나라에서는 이은현 등(2019)이 타당화한 21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4점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2점이다. 총점 및 하위 요인의 사후 측정치가 낮아지는 경우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값은 우울은 .91, 불안은 .90, 스트레스는 .89, 총점은 .96이었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및 AMOS 21.0.0을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마약 사용 범죄 특성에 대한 분석은 빈도 분석하였고, 요인 구조 분석을 위해 주성분분석으로 요인추출 및 사교회전(direct oblimin)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적합도 및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척도 간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 다음호에 이어서



#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사례연구

## —— 유전과 환경의 영향 비교



**신연희**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사례분석
- V.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 국문요약

이 연구는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유전과 환경 모델이 실제사례에 적용되는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범죄행동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된다는 인식이 범죄학에서 지배적이지만, 유전(본성)과 환경(양육)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연구를 위해 범죄경력이 있는 남녀 두 사례를 대상으로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상반된 관점들이 지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된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행동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를 비교하였을 때 사례별로 차이를 보였다. 사례에 따라 유전 혹은 환경의 영향이 범죄행동에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유전관점과 환경관점 모두 실제사례를 통해 그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아울러 범죄행동의 발전과정에서 유전과 환경 요인들은 상호작용하였고 생애단계가 진행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해갔다. 따라서 범죄행동은 큰 틀에서는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이지만, 범죄인에 따라 유전 혹은 환경이 근본적 원인이면서, 여기에 환경 혹은 유전이 촉발요인이 되었다. 이에 범죄학 이론은 타고난 특성을 지지하는 생물학·심리학적 관점과 환경요인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관점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범죄행동에 관한 이해는 개별 범죄자들이 살아온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분석한 사례들은 모두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까지 특정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범죄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발달의 보편적인 원리인 연속성과 점성성은 범죄행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범죄통제정책과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개별 범죄인들의 각기 다른 삶의 과정을 반영하여 처우의 개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범죄행동 원인, 유전, 환경, 상호작용, 과정중심접근**



## I. 서론

사람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명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람마다 다른 개별성과 다양성은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살면서 환경이 작용한 것인가? 인간에 대한 탐구의 본질적인 질문임에 분명하다. 인간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전과 환경, 혹은 본성과 양육이라는 대립되는 관점은 여전히 논쟁의 주제이다.

인간행동에 관한 생물학적 결정론자들은 물론이고 성격의 고유한 특성을 주장하는 심리학자들은 타고난 유전 및 본성의 작용을 중요시한다. 이에 반해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외적인 자극 즉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특성을 주목하는 사회과학 특히 행동주의자들은 환경에 비중을 두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권중돈, 2021: 505-506). 그러나 유전과 환경의 작용을 분리할 수는 없으며 둘 사이의 상호관련성에 의해 인간행동은 결정된다는 관점이 주류를 점하고 있다(홍대식, 1984: 71).

범죄행동의 원인을 규명하는 다양한 이론들도 그 토대는 두 개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범죄성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범죄행위를 인식하는 방법에서 상호대립적인 경향이 있어 왔다(이윤호, 2007: 193). 심리학이나 생물학과 결합된 범죄학이론에서는 본성 및 유전모델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론들은 양육 및 환경모델을 적용하여 범죄행동을 설명하며 이에 입각하여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전자의 경우 범죄인마다 다른 고유한 특성이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비중을 두어 설명하는데 반해, 후자는 개인적 차이는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회과정과 사회구조를 강조한다(이윤호, 2007: 199-201).

어떤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가? 혹은 범죄행동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은 범죄행동의 본질을 탐구하는 일이다. 국내에서 이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범죄원인을 다루는 연구는 주로 환경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방법에 집중되었으며, 범죄행위의 본질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다(박행렬, 2023; 윤일홍, 2012; 이상현, 2002). 나아가 범죄행동에 관한 결과중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양적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범죄행동이 표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사례에 적용한 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쟁점인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범죄행동에 적용하고자 한다. 범죄행동의 원인을 범죄자들의 타고난 개별적인 특성 혹은 성장 환경에 두느냐는 범죄이론들의 출발점이며 나아가 범죄통제정책의 방향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범죄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사례들에 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유전과 환경 모델의 타당성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범죄경력

이 있는 남녀 출소자 두 사례의 생애를 질적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의 장점을 활용하여 생애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범죄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별로 범죄행동에 영향을 준 유전(본성)과 환경(양육)의 작용을 비교하고 두 대립되는 관점의 지지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인간행동에 관한 일반론

인간발달과 행동에서 유전과 환경의 영향에 관한 대립되는 관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슈로 다루어진다. 타고난 특성인 유전은 본성 혹은 선천성으로, 환경은 양육 혹은 후천성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유전(본성)과 환경(양육)으로 구분되는 대립적인 관점에서 현대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서는 학자에 따라 어느 한 쪽을 강조하여 연구를 접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성과 유전 혹은 양육과 환경을 구분하여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큰지를 정량화하여 평가하고 있어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유전관점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각기 다른 지능과 신체적 조건과 특별한 영역의 재능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정서적인 면도 타고난다(홍대식, 1984: 470). 생물학에서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은 물론이고 성숙(maturation)은 유전적 기재의 작용에 따라 학습의 과정 없이 변화된 결과이다. 심리학에서도 본성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성격 전체를 정신(psyche)으로 표현한 융(Carl Gustav Jung)은 사람마다 특정한 방향으로 발달하고자 하는 선천적인 경향과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는 선천적인 욕구가 있음을 전제하며, 만약 성장과정에서 타고난 방향으로 선천적인 경향을 따른다면 성공적인 발달로서 이러한 개인은 정서적인 만족과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김정택·심혜숙, 2002: 307).

이에 비해 환경은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사회적인 조건이나 상황들로서, 후천적으로 만나게 되며 본성과는 달리 외적환경(사회화, 부모 등)에 의해 양육을 거친다.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인간행동은 양육을 비롯하여 후천적인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얼마든지 만들어 갈수 있는 가변적 속성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스키너(Burrhus Frederic Skinner), 반두라(Albert Bandura)와 같은 행동주의자들은 인간행동의 대부분은 학습되거나 학습에 의해 수정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권중돈, 2021: 503-505). 기계론적 환경결정론자인 스키너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인간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세계, 성격이나 심리 및 정서

적인 측면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Skinner, 1971; 권중돈, 2021: 505 재인용). 그러나 반두라는 인간은 단순한 사회문화적 조건의 산물이 아니며 그 자신도 환경을 산출해 내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행동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상호결정론)라 본다(Bandura & Walters, 1963; 권중돈, 2021: 505-506 재인용).

유전과 환경의 상반된 관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전과 환경은 대립이 아닌 상호적인 관계이며, 따라서 두 요인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Plomin & Asbury, 2005). 타고난 본성과 양육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힘과 역동성이 인간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기본 전제라는 것이다(DeLisi, et al., 2010). 대표적으로 베어맨(Bearman, 2008)은 사회과학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유전적 요인을 주목하는 것이 사회학적 관점을 훼손한다거나 20세기 초반의 우생학 프로젝트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는 태도는 타당하지 않으며, 인간행동에 대한 탐구에서 유전적 관점과 사회구조적 관점 모두가 유용하다고 논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 따라 혹은 특정상황에서 어느 요인이 보다 우세하게 작용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고 있다(Levitt, 2013).

## 2.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관점

### 1) 유전모델

범죄학에서 특성이론은 개인의 타고난 뇌구조, 신체적 특성과 같은 생물학적 구성이나 정신적 특성의 결과로 범죄를 설명한다. 유전 관점에서는 환경결정론을 우려하면서 타고난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Caspi et al., 2002; Walsh, 2009: 9; Levitt, 2013 재인용; Wright & Miller, 1998). 생물학 및 심리학적 접근은 범죄행위에 영향을 주는 유전 혹은 본성의 영향력을 주목한다.

범죄인의 신체적 특성을 제시한 롬브로조(Cesare Lombroso)를 시작으로, 유전적 요인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제시한 가계연구의 더그데일(Richard Dugdale), 랑게(J. Langer)의 쌍생아 연구와 메드닉(S. Mednick)의 입양아 연구는 범죄행동의 생리적 특성에 관한 초기적 연구들이다. 비교적 최근에는 신경생리학, 생화학적 조건이 범죄행동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신연희, 2023b: 158-160). 이상뇌파를 중심으로 인간의 두뇌활동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지지하는 신경생리학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법무연수원, 2019: 671), 인체 내의 생화학적 결핍이나 불균형이 초래한 호르몬 이상이 감정적 장애를 일으키고 이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

다고 보는 이론들(Siegel, 2020: 169-170)은 개인마다 다르게 타고난 생물학적 독특성이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지한다.

반사회적 및 폭력적 행동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작용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국외에서는 상당히 많다. 한 예로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본성과 양육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인정하지만 특정 행동을 설명할 때는 그 행동의 원인에 대해 본성 혹은 환경적 요인으로 분리하여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함으로써 유전적 요인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Levitt, 2013). 이 연구에서는 3세대로 구성된 78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폭력적 및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을 본성과 양육모델에 입각하여 어느 요인의 영향력이 큰 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유전요인의 중요성을 주지시켰다. 한편, 최근에 수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위험군 청소년 731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여 영유아기에 환경과 유전에서의 위험요인들이 청소년기에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요인 모두 청소년기에 형사사법체계에 연루되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면서 환경요인과 함께 유전요인의 영향도 주목해야 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Savannah, 2024).

그러나 범죄행동을 순전한 생물학적 혹은 심리학적 특성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대체적이다(Seigel, 2020: 166). 생물학적 혹은 심리학적 접근은 일정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장래 범죄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예측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 예측의 어려움과 인권침해의 면에서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이윤호, 2007: 360-361). 범죄는 사회적·법적으로 규정되어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행동을 유전적·생물학적인 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따라서 생물학적 접근은 사회환경적 요인들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상현,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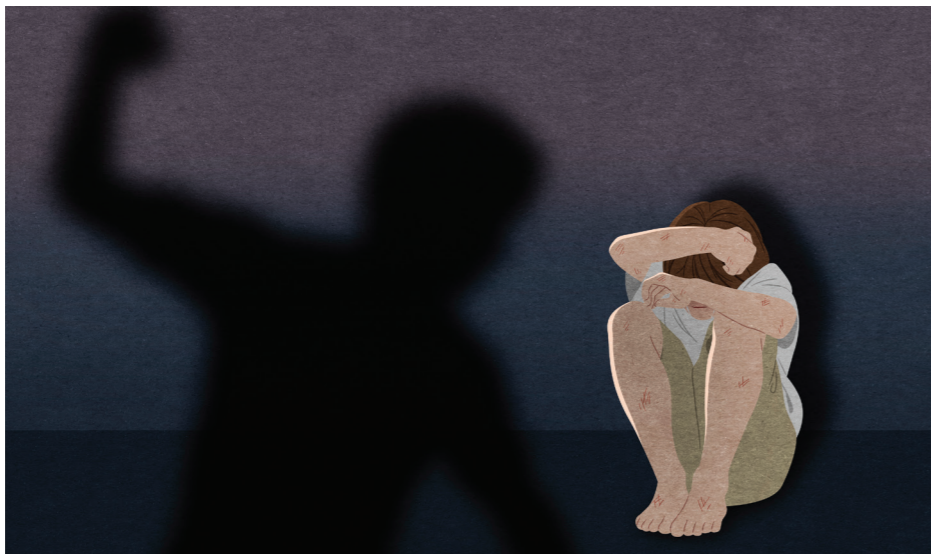
생물학적 접근의 최근 경향은 유전자가 뇌 기능 등을 통해 범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범죄행위에 대한 환경적·사회적 영향도 중요한 만큼 사회학적 접근은 유전학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Beaver, 2006). 대표적으로 생물사회학이 이에 해당한다. 생물사회이론은 환경적 조건이 개별적 특성과 상호작용하면서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범죄행동 역시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환경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작용한 결과로 본다. 생물사회학 이론은 생물학적인 특성이 범죄자가 될지의 여부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생물학적 특성은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본다. 나아가 생명공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미래에는 범죄행동의 이해 및 판결에서도 유전요인에 관한 관심이 늘어갈 것으로

전망한다(Chakraborty, Upreti, Mishra, 2011).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유전적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유전자와 환경이 상호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학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국내 범죄학의 경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생물사회학적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윤일홍, 2012).

## 2) 환경모델

사회학적 이론들은 환경모델에 속한다. 현대 범죄학 이론들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환경적 접근이 지배적이었으며, 범죄통제 정책 역시 이에 바탕을 두었다. 현대 범죄학 및 국내의 관련연구들은 주로 환경모델에 입각하여 진행되었고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관해서는 간략히 기술하였다.

환경관점에서는 범죄행위를 유전적 요인에 귀속시키는 것은 결정론적이며 경계해야 할 일로 본다(Cadigan & Fielding, 2000). 사회구조이론은 거시적 사회 환경에서부터 지역사회 특성, 그리고 개인들을 둘러싼 부, 권력, 자원, 교육, 가정의 특성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범죄행동을 설명한다. 유전요인들은 범죄행동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소수의 범죄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개별적 특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학적 이론들은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요인들이 범죄행동에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간의 차이는 범죄행동에 영향을 줄 정도의 수준이 아니므로 정상범위 내라고 전제한다(이상현, 2002).



오늘날 상당수의 학자들은 사회학적 관점이 생물학적 주장을 금기시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유전과 환경의 통합 관점을 제기한다(Bearman, 2008; Cooper, Walsh & Ellis, 2010; Walsh, 2009; Levitt, 2013 재인용; Wright & Miller; 1998). 두 개 관점이 결합될 때 범죄행동에 관한 보다 풍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성과 양육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인식은 순진하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Craddock, 2011).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며 유전과 환경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DeLisi, et al., 2010; Levitt, 2013; Plomin & Asbury, 2005).

## I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방법과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통해 범죄행동의 원인과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클랜디닌과 케인(Clandinin & Caine, 2013)은 연구대상자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스토리텔링)하도록 하는 내러티브 접근은 개인들의 경험을 여러 측면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연구대상자가 연구의 주체가 되므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야기한 것들을 연결하여 삶 전체를 조망하기 때문에 개별 사례들의 생애 전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탐색할 수 있다(신연희, 2023a). 따라서 범죄행동의 원인을 과정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탐구 방법으로 내러티브 연구가 적절하다.

연구를 위해 교도소 출소자 남녀 두 사람을 유의표집(purpose sampling)에 의해 선정하였다. 생애 전반을 연구범위로 하는 만큼 시대, 문화 등과 같은 시간체계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60대로 한정하였고,<sup>1)</sup>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양성 모두를 사례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에서 교도소 교정위원 두 분의 소개를 받아 두 사례를 선정하였다. 사례1은 1959년생(조사당시 64세) 남성으로 청소년기부터 폭력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조직폭력범죄자이다. 사례2는 1963년생(조사당시

1)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는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생태학적 환경을 미시, 중간, 외부, 거시체계, 시간체계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시간체계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역사적 환경을 포함하는 체계를 의미이다(신연희, 2015).





60세) 여성으로 사기죄로 복역한 경력이 있다.

사례별로 일대일 면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는 비구조화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자료의 보완을 위해 진행한 추가 인터뷰에서는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은 대면면접과 전화 및 이메일 면접을 병행하였고, 수행기간은 2023년 9월 중순부터 2023년 11월 중순까지이다.

## 2. 주요 개념 정의와 자료의 분석

이 연구의 주된 개념은 “유전”과 “환경”이다. 일반적으로 유전은 타고난 특성을 이르며, 본성 혹은 생래적 요인에 해당한다. 환경은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적 조건들, 경험, 양육·사회화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전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개인의 기질, 성향과 같은 내적인 특성과 신체적 특성으로 규정하였고, 환경은 주어진 외적환경이나 경험들, 사회화 등으로 규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인생을 회고한 내러티브를 원자료로 하여, 이를 구조화시켜 생애단계(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를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부각되는 유전 및 환경요인들이 삶의 연속성 속에서 범죄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주목하였다. 또한 유전모델과 환경모델에 관한 각 각의 지지근거가 될 수 있는 내러티브를 찾아 사례별로 제시하였다.

내러티브 자료의 신뢰성은 세 번에 걸쳐 진행된 면접의 장점을 활용하였다. 2회차 및 3회차 면접에서는 주요내용에 대해 연구 참여자의 기억이 맞는지를 반복하여 질문함으로써 왜곡된 기억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갔다. 한편, 자료해석에 관한 연구자의 주관성을 완화하고자 일차적으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였고, 나아가 연구자가 해석한 부분은 다음 회차 면접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점검하도록 하여 연구자와의 의견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IV. 사례분석

### 1. 유전모델의 적용

#### 1) 아동기

##### (1) 사례1: 타고 난 기질과 신체, 성격 특성

아동기는 타고 난 특성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시기이다. 사례1은 강한 기질적 특성, 건강하면서 날렵한 신체적 우수성, 친구들과 무리지어 놀기를 좋아하는 외향적 성격 등이 아동기에 발견된다.

##### ① 강한 기질과 깡

“가끔씩 깡(성질)을 부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성격이 강했어요. 그렇다고 누구를 때리거나 그 때문에 부모에게 맞은 기억은 없습니다. 어릴 때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나쁜 일도 없어요.”

##### ② 튼튼하고 날렵한 신체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보다 키가 크고, 달리기도 잘 했습니다. 친구들과는 다르게 신체조건이 좋았던 것이지요. 초등학교 때 눈에 띄었는지 육상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 ③ 외향적 성격

“어릴 때부터 머리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성격도 활달했지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좋아했습니다. 육상선수를 하게 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몰려다니며 놀던 것은 그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같은 육상반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려서 놀기도 좋아했습니다.”

**(2) 사례2: 총명하고 부지런함**

초등학교 때부터 언니와 함께 가사 일을 돕는 따뜻한 심성, 매사에 적극적이고 부지런함, 영리하여 공부도 잘한 것은 타고난 특성일 수 있지만, 여자아이에 대한 양육의 영향도 일정부분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① 부지런하고 착한 심성**

“엄마가 돈을 벌러 다니셨기 때문에 언니와 제가 집 안 일을 했어요. 초등학교 되기 전부터 엄마를 도왔던 것 같아요. 착한 편이었지요.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와 언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② 영리하고 적극적인 아이**

“어릴 때부터 예쁘고 영리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도 잘 했고요, 매사에 적극적이어서 제가 주도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2) 청소년기****(1) 사례1: 타고난 특성은 비행문화와 잘 어울림**

건장한 신체, 무엇이든 해내고 마는 기질은 우연히 노출된 비행청소년들과의 패싸움을 계기로 싸움실력을 확인하게 되고, 비행친구들과의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싸움꾼으로 발전해 간다.

**① 혈기가 넘침**

“저는 무슨 일이든지 살살하지 않고 쎄게 합니다. 물건을 잡거나 예를 들어 컵을 잡더라도 꼭 쥐고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싸움도 잘했는데 타고 난 것 같습니다. 2대 1로 싸우는 정도로는 진 적이 없어요. 주먹을 휘두르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고 어떻게든 이겨야겠다는 강이 안에서부터 올라왔어요. 혈기가 남달랐지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에게 우쭐떨 수 있었고, 점차 강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패싸움을 즐기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② 용감하고 닥치는 대로 덤빔**

“싸움에 휩쓸리게 된 계기는 고1 때였는데 다른 학교에서 사고치고 우리 학교로 전학 온 한 살 많은 형과 친하게 지내면서부터 저의 성향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싸움도 잘해서 진 적이 없어서 짱 대접을 받았습니다. 용감하고 닥치는 대로 덤벼서 두들겨 패기 때문에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③ 남보다 우수한 체격 조건**

“머리가 좋아 공부도 잘하였고, 운동도 잘 했기 때문에 고교시절까지 육사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공부나 신체적 조건에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패싸움 때문에 학교를 중퇴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④ 비행하위문화에 적응하기 쉬운 성격**

“어릴 때부터 외향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학교를 중퇴하고 자퇴한 비슷한 부류의 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과는 저의 주먹질과 기질과 성격이 잘 맞았습니다. 패싸움이 시작되면 기질 상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싸울 때마다 이겼고 그 세계에서 인정도 받았고 우쭐하기도 했지요. 학교에서 중퇴하였지만 어울렸던 친구들 사이에서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2) 사례2: 순종적이면서 외향적 성격의 유지**

청소년기에도 유전적 특성은 부각되지 않지만 부지런함, 착한 심성, 적극성 등은 이어지고 있다.

**① 상황에 순응하는 양순함과 활동적인 성향**

“중학교 때에 공부는 잘했지만 엄마는 딸이라서 대학을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취업이 쉬운 서울의 야간 여자 상고에 진학시켰습니다. 좋아서 간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무엇보다 교회생활에 열중이었어요. 언니가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제가 더 열심이었지요. 성가대도 하고 여학생 회장도 하고, 교회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즐거웠던 기억이 많아요.”

**3) 청·장년기****(1) 사례1: 기질적 특성에 부합된 조직폭력에서의 삶**

조직폭력은 직업이 되었고 그 세계에서 지위도 확보했다. 타고 난 총명함, 싸움에 유리한 신체, 지지 않는 강한 기질이 작용한 것이다. 직업의 특성상 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교정시설 입·출소는 반복되었다.

**① 타고난 운명**

“저 같은 조폭들은 점이나 미신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들의 운명이 기구하다고 보고 그렇게 된 것은 타고난 운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폭들은 대개 기가 남달리 센 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기들이 있어 평범한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폭들은 무속 신앙이나 불교 쪽으로 인연이 많아요. 저도 태어났을 때부터 센 기질이 있었다고 봐야지요.”

## ② 상대방을 제압하는 외모

“그런 세계에서 살다보니, 인상도 험상궂어졌나 봅니다. 교도소에서 나와서 교회에 출석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 살기가 돌고 무섭다고요. 지금은 많이 순해진 것입니다. 수십 년 간 무자비하게 싸움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 때는 상대 패거리들이 많으면 쇠파이프, 칼, 유리를 깨서 휘둘렀고, 내 배도 유리로 여러 번 긁었습니다. 상대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 ③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하는 과감함

“무자비하게 싸웠지요. 음주와 흡연, 한동안 마약에 빠져있기도 했습니다. 마약은 부산에서 벌려 놓은 사업이 실패하면서 마음이 상해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후배가 권해서 시작했던 것인데, 성격상 한 번 시작하면 넘치게 합니다. 폐인이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있었던 사찰 화장실에 약을 몽땅 버려 버렸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약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하는 성격이라서요.”

## (2) 사례2: 도전적으로 대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몸에 배인 부지런함, 도전적인 성격, 영리함은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었지만, 사업의 위기를 벗어나는 방식(무리한 주식투자와 사채)에도 반영되어 사기범죄자가 된다. 타고난 특성은 직면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작용하였다.

### ① 도전적인 사업 운영과 과한 욕심

“대리점을 정리하고 남긴 돈으로 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인데 돈이 제법 벌렸어요. 제가 직접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더라고요. 저는 일을 크게 키우는데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은 처음에는 아주 잘 되었어요. 제가 열심히 뛰어서 저를 믿고 거래하는 단골 고객들을 많이 확보했거든요.”

“제가 죄를 지은 것은 욕심이 과해서,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겁이 없이 일을 합니다. 그때 제가 가진 욕심은 형편과 주제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 2. 환경 모델의 적용

### 1) 아동기

#### (1) 사례1: 안정된 성장 환경

아동기의 주된 생활세계인 가정과 학교환경에서 특별히 취약해 보이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가족관계도 화목하였다. 학교생활도 무난하였고 공부를 잘했다.

#### ① 평범한 가정과 가족 관계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3남1녀 중 둘째 아들이었고, 7살 때 서울 영등포로 이사했고 지금까지 영등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별 문제 없이 자랐어요. 어느 정도 잘 살았고 가족 간에 다툼 없이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위의 형에게 반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싸운 기억도 없을 정도로 우애가 좋았습니다.”

#### (2) 사례2: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차별적으로 양육됨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다. 어린 아이였지만 가사를 돕고 남자형제들을 돌보았다.

#### ① 여자아이라 차별적으로 양육됨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6남매를 혼자 키우느라 참 열심히 일하셨어요. 장사한다고 집을 비운 날이 많았기 때문에 언니와 제가 대신해야 했습니다. 아들들 공부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언니는 중학교를 가지 못했고, 저도 고등학교를 야간 여상고로 갔어요.”

#### ②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형성

“초등학교에 다닐 때니까 어린 나이이지요. 오빠들과 남동생을 돌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사건이 터졌을 때 큰 오빠가 1억의 빚을 갚아주었고, 남동생도 어려울 때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가족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지요. 평생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도 혼자서 저희 6남매를 온갖 고생하면서 키워주셨으니 감사하고 언니도 소중하지요. 지금 저한테는 딸과 두 아들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 2) 청소년기

### (1) 사례1: 비행하위문화 진입과 폭력예의 노출

외적인 사건(비행친구, 패싸움)과 타고난 특성(강한 혈기, 강인한 신체, 총명함)이 상호작용한 결과 비행청소년이 되는데, 이 때 외적 사건들은 본성이 발현되도록 하는 촉매작용을 한다. 직업군인의 꿈을 실현시키기 전에 비행에 먼저 노출됨에 따라 타고 난 강점은 비인습적 사회에서 발휘된다.

#### ① 비행친구와의 교제와 패싸움

“싸움에 휩쓸리게 된 계기는 고1 때였는데 다른 학교에서 사고치고 우리 학교로 전학 온 한 살 많은 형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 형과 친구가 되니 친구들도 저를 그 형처럼 대접해 주는 것이 좋았어요. 다른 패거리들과 싸움에 우연히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첫 싸움인데 제가 싸움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② 학교 중퇴와 형사사법체계로의 노출

“패싸움에서 상대방을 심하게 다치게 했고 그러자 학교에서는 전학을 하거나 중퇴해라고 했습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자동차정비 기술을 배우려고 학원과 정비소를 다녔는데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패싸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해서 경찰서에 드나들기도 했는데, 그 때마다 아버지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 주어서 심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 ③ 조직폭력에 진입

“사는 동네가 이대입구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놀던 지역에서 다른 친구들을 소개 받고 그래서 친구들이 늘어났지요. 대부분이 학교에서 나온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과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유 없는 패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잘하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세계에서 싸움 잘 하기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싸움에 자질이 있고 깡이 있는 것에 반한 친구들과 형들의 권유로 전국적으로도 유명했던 서울 OO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직원을 선발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조직이었기 때문에 선발된 것에 대해 자부심이 컸지요.”

### (2) 사례2: 여성이어서 당한 폭력

중학생 때 언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 일로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그늘이 졌고, 남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트라우마는 청·장년기가

지 굴레로 작용한다.

#### ① 성폭력을 당함

“중학교 때쯤 부터 엄마가 다방을 운영했는데 언니에게 커피 배달을 맡기기도 했어요. 제가 혼자 있는 집에 언니 남자친구가 가끔 왔었고 그 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언니 남자친구에게 당한 일은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고 그러는 동안 성폭행은 계속 되었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언니에게 말했더니 언니도 커피 배달 갔다가 처음 본 손님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결혼하자고 해서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언니는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 ② 부정적 자기이미지 형성

“여자가 순결을 잃으면 여자로서는 끝나는 것으로 알았고 창피해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린 마음에 성폭력은 몸을 지키지 못한 내 잘못인 것 같았어요. 나는 창피한 존재, 순결을 잃은 여자, 좋은 남자와 결혼할 자격이 없는 여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에 친구들이 좋은 남자를 소개해 준다고 해도 흠이 있는 여자라는 생각에 거절했어요. 남편처럼 못한 남자와 결혼한 것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 ③ 남자들에 대한 부정적 사고 형성

“남자들이 전부 나쁘지는 않겠지만 무섭고 끔직한 일을 겪고 나니 남자들한테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오빠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나쁜 남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좋은 남자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 3) 청·장년기

### (1) 사례1: 직업이 된 조직폭력, 그리고 변화의 동기가 된 가족에 대한 사랑

청·장년기는 교도소 입·출소를 반복하는 삶이었다. 폭력조직은 생계수단과 사회적 관계 등 모든 것의 기반이었으므로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아내의 반대에도 그 생활을 중단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가족애와 아들에 대한 사랑은 조직폭력의 삶을 중단하겠다는 동기로 강하게 작용한다.

#### ① 조직폭력에서 안정적 지위 확보

“조직에서 지위도 높았고 서울, 부산 등지에서 유흥업소, 오락업소를 관리하면서 편하게 살았지요. 사회에서 높은 분의 경호업무도 했고요. 아내는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후배가 살인을 하고 관련된 몇 명이 저의 집에서 한동안 함께

지내는 일까지 생기자 아내는 견딜 수 없었던지 아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점차 지위도 올라가고 대접도 받으니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치소에 몇 개월씩 수감되는 생활을 반복했고 실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 ② 인습적 사회에서의 적응능력 취약

“약 30여년을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인맥도 생겼고, 아는 것이 유흥업 계통이다 보니 다른 곳에서 정착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하여 제 나이 서른네 살에 아들도 낳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 ③ 가족에 대한 사랑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

“그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나쁜 아빠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교를 가져볼까 하여 평소에 수용자들을 붙들고 기도하던 교도관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되자 점차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빠의 모습이 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 생각과 건강이 악화된 문제 때문에 신앙을 찾게 되면서 조직생활을 과감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이지요. 저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50대에 들어서야 정신을 차렸으니 인생을 돌고 돌아 정상적인 사람으로 왔습니다.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 (2) 사례2: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지만 사기 범죄자가 된 삶

두 번째 성폭력을 당하고 그 남자와 결혼하여 세 아이 키우고 빈곤도 감당해 내었다. 술 중독자이고 가족에게 무책임하며 외도까지 하면서 경제 감각도 없는 남편을 대신하여 세 아이들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뛰어들었던 사업으로 인해 결국 사기 범죄자가 되었다.

## ① 두 번째 성폭력과 왜곡된 가치관

“야간 여상고 졸업 후 취업해 있을 때 고객으로 드나들던 남자가 있었어요. 다른 고객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는데 술을 취하도록 먹은 사람이 저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따라와서는 몸을 이기지 못하고 눈 위에 누워버렸어요. 걱정이 되어 데리고 간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자고 했고, 주변에서 다 결혼을 반대할 만큼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왕 몸을 주었으니 결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나는 중학교 때부터 처녀성을 잃은 사람이니 좋은 남자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다. 이 남자는 부족하니까 나만 사랑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정말로 바보 같은 것이었습니다.”

## ② 가난하고 힘든 결혼생활

“남편은 날마다 술에 취해서 귀가했고,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무심하고, 식구들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남편의 월급 관리를 시어머니가 해서 저한테 생활비를 주지도 않았어요. 나를 이렇게(범죄자) 만든 것은 바로 남편입니다.”

## ③ 남편의 무능과 외도

“저는 남편에게 보호받으며 사는 여자들이 제일 부러워요. 무슨 복이 저렇게 있나 싶어요. 시아버지는 날마다 술타령만 하는 중독자였고 알콜 중독을 남편에게 물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생활비는 자신이 움켜쥐고 있어서 저는 집에서 부업을 끊이지 않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 아이를 키우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그 여자에게 돈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혼은 안하겠다고 하고 잘못을 빌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을 하더니 저렇게 밖에 못 사네’ 그런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이혼을 못했어요. 남편은 평생에 경제적 보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카드 빚으로 제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압류까지 오게 했습니다.”

## ④ 사업의 실패와 무리한 자금조달

“중개사무소 사업을 늘이기 위해 주변에서 자금을 빌렸어요. 제가 자격증 없어서 대표는 못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을 제가 다 했고 잘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으니까 영업이 잘 안되었어요. 퇴원한 후에도 사업은 회복이 안되어 빨리 만회할 욕심에 주식을 시작했고 사채를 5억 이상 썼습니다. 채권자 중 한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의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으니 결국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3. 소결

사례1의 생애를 아우르는 주제는 “타고난 강한 기질 어떻게 다스릴까?”이다. 사례1의 경우 기질적 특성이 특히 두드러지고 신체적 특성이 이를 지원한다. 타고난 영리함과 건장한 체격, 해내고야 마는 강한 기질,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활동적인 성격과 같은 유전요인들은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강점이다. 그런데 먼저 노출된 비행 문화에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활용되었고 조직폭력의 세계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부합했다. 아동기에 발현된 기질적, 신체적 특성은 청소년기에 만난 환경요인들(비행 친구와 만남, 학교중퇴, 비행하위문화와 조직폭력 진입)과 상호작용한다. 조직폭력

배로 산 청·장년기는 타고 난 특성이 바탕이 되지만 환경요인들(조직폭력에서 확보한 지위, 인습적 기회구조에서 배제 등)과 상호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범죄행동의 진입과 발전에 유전모델이 우세하게 적용된다. 동시에 생애단계가 진행하면서 환경요인들은 잠재된 유전요인들을 표출시키는 촉매작용을 한다.

사례2의 생애는“여자에게 험난한 세상, 헤쳐 나가기가 힘들다.”로 표현된다. 사례1과 달리 범죄행동을 표출하는 기간이 짧고 원인 또한 직면한 환경요인들의 영향이 크다. 아동기부터 드러난 부지런하고 착한 심성, 영리함과 적극적인 성격은 일정부분 타고난 특성일 것이다. 이에 반해 삶의 과정에서 외적으로 주어진 사건들은 두드러진다. 두 번의 성폭력 피해는 무능하고 불성실한 남자와의 결혼을 초래했다. 수십년 계속된 빈곤, 남편을 대신하여 시작한 경제활동과 예기치 않은 사고들과 같은 부정적 환경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유전요인들은 환경 속에 잠재되어 있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사례2의 경우 범죄행동의 원인은 환경관점이 우세하게 적용되며 유전은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 V. 요약 및 논의

### 1. 요약

이 연구에서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유전과 환경 관점은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두 관점 모두 범죄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유용함을 의미한다. 사례1(남자, 조직폭력)은 유전적 특성이 강하게 작용하데 반해, 사례2(여성, 사기)는 삶의 과정에서 직면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이 강했다.

사례1의 타고난 기질적, 신체적 특성은 비행청소년 문화와 조직폭력 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에 적절했고 성공적 지위도 확보했다. 범죄(비행)행동의 시작부터 전문 범죄인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유전모델의 적용이 적절하였다. 한편 사례2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당한 두 번의 성폭력 피해로 잘못된 결혼을 하였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헌신하였다. 그러나 불운한 사건들로 인해 기울어진 사업을 회복시키려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되었다. 범죄행동의 원인을 환경모델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전과 환경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대치되는 개념이기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행동이 결정된다는 선행연구(윤일홍, 2012; Jeffery & Jeffery, 1975)

의 타당성 또한 확인되었다. 범죄행동을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성에서 접근할 때 순전한 환경요인 혹은 타고난 특성만이 작용하기보다는 두 요인의 상호작용이 존재했다. 사례1이 조직폭력에 진입한 데에는 강한 기질(유전)과 비행친구와의 만남(환경)이 상호작용했고, 사례2가 사기죄를 범한 것은 무능한 남편 등 상황적 요인들(환경)과 도전적 성격(유전)이 결합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범죄행동은 큰 틀에서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된다. 그러나 사례에 따라 유전요인이 근본이고 환경이 촉매작용을 하거나(사례1), 혹은 환경이 결정적 요인이고 이에 대한 대응·대처방식에서 유전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사례2).

## 2. 논의

### 1) 유전과 환경 관점의 공존

이 연구에서 범죄원인에 관한 유전과 환경 모델을 실제사례에 적용하였을 때, 사례에 따라 유전관점과 환경관점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다. 유전, 환경 관점 모두 범죄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갖는 것으로 보인다.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사례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범죄행동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별사례별로 타고난 유전 혹은 환경이 우세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범죄원인에 대한 평가에서 타고난 본성(기질 등) 때문으로 주장하는가 하면(사례1), 가혹한 삶의 여건(불행한 사건들)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사례2).

연구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이론들은 타고난 본성 및 유전적 특성을 지지하는 생물학 및 심리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의 융합이 필요하다. 현대 범죄학은 환경을 주목하는 사회학적 관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개별범죄자들의 특성을 주목하는 생물학 및 심리학적 관점을 소홀히 하였다. 그 이유로 유전이나 정신 등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력은 과학적 연구방법으로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미래에는 생명공학이 더욱 발전할 것이고, 법의학을 비롯하여 범죄학과 사법체계, 범죄통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Chakraborty, Upreti, & Mishra, 2011). 따라서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양분화된 관점을 견지하기 보다는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합적인 연구결과를 얻으려면 학문은 반투과성(半透過性) 경계로 서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생물사회학

(biosocial) 혹은 생물심리사회학(biopsychosocial)으로 접근하는 학제 간 융합은 범죄학과 범죄통제정책의 과제로 보인다.

둘째, 범죄원인에 관한 유전과 환경 모델 모두 범죄자의 자기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범죄행동을 초래한 위험요인들을 주목하게 되면 범죄자의 책임이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와 이성을 가진 존재임이 분명하므로, 범죄행동에서 유전이나 환경요인의 영향력에 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Levitt, 2013). 사례1과 사례2 모두 주어진 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정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며, 범죄행동을 결정함에 있어 자신들의 인지와 판단이 개입되었으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범죄원인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와 무관하게 범죄자의 자기책임을 범죄통제 정책에서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다.

## 2) 범죄행동에 관한 과정중심 이해의 적절성

이 연구는 사례에 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삶의 전 과정을 조사범위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 전반에 관한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 범죄행동은 아동기부터 점진적으로 발달한 연속적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인간발달은 이전의 발달을 기초로 이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점성원리가 사례들의 범죄행동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인간발달의 보편적인 원리인 연속성과 점성성은 범죄행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sup>2)</sup> 따라서 범죄행동을 특정 시점이나 결과중심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범죄인이 살아 온 과거와의 연결성 내지는 삶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범죄원인에 관한 이해를 과정중심으로 접근할 때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개입이 가능해 진다. 아동기의 품행문제에 대해 부모가 개입하였을 때 청소년기 이후에 범죄자가 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Savannah, 2024).

따라서 범죄통제정책 특히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범죄행동이 초래되기까지의 오랜 기간을 살피고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나아가 범죄인마다 각기 다른 삶의

2) 연속성과 점성성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사례1의 경우 타고 난 신체적 우수성으로 아동기에 학교 운동부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생활을 즐기게 된다. 이러한 성품은 고교시절 전학 온 형과 금방 친해지고 그가 속해 있던 비행친구 무리와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비행에 노출된다. 사례2의 경우 아동기부터 시작된 가족 돌봄은 가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고 결혼 후에는 가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며 결국 사기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과정을 가정할 때 범죄인 처우에서 개별성은 강화되어야 한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도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sup>3)</sup> 이 연구를 통해 지지된 범죄행동 원인과 발생과정의 다양성은 개별 수용자의 특성에 맞게 처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해 함의하는 바가 크다.

##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이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하여 범죄행동의 원인을 과정중심으로 설명하였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범죄원인에 관한 대립되는 두 관점을 동시에 다룸으로써 보다 큰 틀에서 범죄행동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안은 첫째,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별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가능하지만 소수사례를 대상으로 도출한 결과를 범죄행동의 원인 및 과정에 관한 일반적 현상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거듭 밝힌다. 둘째, 남녀 사례 모두를 포함한 것은 범죄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지만, 사례별로 대조되는 삶의 모습이 개별 인간이 아닌 성별의 영향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범죄유형별로 원인의 독특성이 있을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 다룬 범죄사례(조직폭력, 사기)들이 다른 유형의 범죄에 확장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56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① 소장은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이하 “개별처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가 스스로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욕이 고취되도록 개별처우계획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권중돈. (2021).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 이론과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정택/심혜숙(역), (2002), 서로 다른 천부적 재능들(Gifts Differing: Understanding Personality Type by Myers, I. B., Myers, P. B. 1980), KPTI.
- 박행렬, (2023), 범죄와 인간본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범죄학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1호, pp. 153-186.
- 법무연수원. (2019), 2018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신연희, (2023a), '출소자 사회통합 보호요인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정담론, 제17권(3), pp. 43-84.
- \_\_\_\_\_, (2023b), 교정복지론: 범죄문제와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 \_\_\_\_\_, (2015), '출소준비 수형자의 가정실태와 가족재결합 관련요인: 생태체계이론의 적용', 교정연구, 제67호, pp. 183-205.
- 윤일홍 (2012), '유전자-환경 상관관계와 범죄학 연구', 한국범죄학, 제6권2호, pp. 267-308.
- 이상현(2002), '범죄의 생물학적 근거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제 4권1호, pp. 7-19.
- 이윤호 (2007). *범죄학*, 서울: 박영사.
- 홍대식(역), (1984), 심리학개론(Introduction to Psychology by Atkinson, R. L., Atkinson, R. C., & Hilgard, E. R.), 서울: 박영사.

### ■ 외국문헌

- Bandura, A., & Walters, R. (1964). *Social Lear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earman, P. (2008). 'Exploring Genetics and Social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14, pp. 5-10.
- Beaver, K. M. (2006). 'Intersection of Genes, the Environment, and Crime and Delinquency: A Longitudinal Study of Offending',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Division of Research and Advanced Studies of the University of Cincinnati.
- Cadigan, T. P., & Fielding, E. W. (2000). 'Genetic Factors and Criminal Behavior', *Federal Probation* Vol. 64(2), pp. 24-27.
- Caspi, A., McClay, J., Moffitt, T. E., Mill, J., Martin, J., Craig, I. W., Taylor, A., & Poulton, R. (2002). 'Role of Geno-Type in the Cycle of Violence in Maltreated Children', *Science*, 297, pp. 851-854.
- Clandinin, D. J., & Caine, V. (2013). 'Narrative inquiry' ( In A. Trainor & E. Graue (Eds.), *Reviewing Qualitative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Routledge), pp. 166-179.
- Cooper, J. A., Walsh, A., & Ellis, L. (2010). 'Is Criminology Moving toward a Paradigm Shift? Evidence from a Survey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Education* 21(3), pp.332-347.
- Craddock, N. (2011). 'Horses for Courses: the Need for Pragmatism and Realism as well as Balance and Caution', *A Commentary on Angel.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73, pp. 636-638.
- DeLisi, M., Wright, J. P., Vaughn, M. G., & Beaver, K. M. (2010). 'Nature and Nurture by Definition Means Both: A Response to Mal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25(1), pp. 24-30.
- Jeffery, C. R., & Jeffery, I. A. (1975). 'Genetics and Criminology - A New Concept', *Quaderni Di Criminologia Clinica*, Vol. 17(4), pp. 487-517.
- Levitt, M. (2013). 'Perceptions of Nature, Nurture and Behaviour', *Life Sciences Society and Policy*, Vol. 9(1), pp. 1-13.

- Plomin, R., & Asbury, K. (2005). 'Nature and Nurture: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Behavio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00 (The Use and Usefulness of the Social Sciences: Achievements, Disappointments, and Promise), pp. 86-98.
- Savannah, O. G. (2024). *Genetic and Environmental Risks and Developmental Mechanisms Underlying Aggression and Criminal Justice Involvement*, Master of Arts in Arizona State University.
- Siegel, L. J. (2020).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이민식/김상원/박미량/박정선/신동준/윤옥경/이창배/황성현 역, 범죄학: 이론과 유형, 서울: 센케이지).
- Skinner, B. F. (1971). *Beyond Freedom & Dignity*, New York: Hackett.
- Walsh, A. (2009). *Biology and Criminality. The Biosocial Synthesis*. Oxon: Routledge.
- Wright, R. A., & Miller, M. (1998). 'Taboo until Today? The Coverage of Biological Arguments in Criminology Textbooks, 1961 to 1970 and 1987 to 1996',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26, pp. 1-19.



2024년 하반기 우수활동 교정위원 간담회 개최



**일시·장소** 12. 19.(목) 11:00, 본부 회의실  
**참 석 자** 본부장, 사회복지과장, 안양(교) 교정위원 이정애 등 15명  
**주요 내용** 장관표창 전수,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오찬 등

2024년 11월 우수 수사관 및 정보관 증서 수여식



**일시·장소** 12. 30.(월) 11:20, 교정본부장실  
**주요 내용** 우수 수사관 : 안양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교위 박순용  
우수 정보관 : 서울동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교도 봉형근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알림



**주요 내용** - 공직자의 품위손상(음주운전 등) 및 청렴 의무 위반 행위 금지  
- 근무시간 준수 및 당직근무 철저

2024년 우수 수사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수여식



**일시·장소** 12. 30.(월) 11:20, 교정본부장실  
**참 석 자** 최우수 : 광주교도소 교위 김성관  
우수 : 천안교도소 교위 권보준  
장려 : 인천구치소 교위 남명현, 안양교도소 교사 강민창  
※ 2024년 수사정보교과자 선발 시험 수석합격자 천안교도소 교위 유한웅 인증서 수여식 동시 진행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해 12월 6일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점검 등을 하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 교정협의회와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서울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3일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서는 2024년 교화활동을 평가하고 2025년 교화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교화 유공 우수위원 시상식 등으로 교정위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안양교도소 / 교도 현민준

##### 하반기 퇴직자 기념식 개최

안양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0일 퇴직자 기념식을 개최하고, 권형순 교감과 한정문 실무관의 퇴임을 기념했다. 기념식은 감사패 전달과 영상 편지 시청 등으로 진행됐는데, 특별히 가족과 지인이 참석해 안양 교도소에서의 시간과 추억을 돌아보는 것으로 기념의 의미를 더했다.



#### 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 수원구치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첫걸음

수원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7일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해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이번 회의는 교정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 기독교탄신일 기부품 접수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24일 (재)범명장학회 및 기독교 분과 위원회로부터 빵 3,500개를 기부받았다. 성탄을 맞아 수용자 격려와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이번 물품은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 인하대학교 학생 참관

인천구치소는 지난해 12월 20일 시설을 방문한 인하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에게 교정기관의 운영 및 교정행정에 대해 홍보했다. 법학개론 수강생들의 참관수업으로 성사된 이번 홍보는 학생들에게 법의식을 고취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조영진

##### 교정협의회, 어린이들과 함께한 따뜻한 성탄절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23일 '남부보라미어린이집'에서 성탄절 행사를 진행했다. 교정협의회 이치헌 부회장 등 3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교정위원들이 직접 산타클로스로 변신, 어린이 46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홍민우

##### 사랑의 손잡기 및 장학금 수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해 12월 관내 불우한 이웃을 대상으로 '2024년 4분기 사랑의 손잡기 성금 지급'을 실시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성실히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2024년 4분기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수여하기도 했다.

####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 한국사법교육원 남양주지역 협의회 대상 참관행사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지난해 12월 3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참관 청소년들은 면도기 공장 및 수용거실 등 교정내부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준비의식 함양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교정장비 체험을 진행했다.

####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민

##### 여주교도소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여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6일 발달장애 등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이은영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김재현

#####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남부교정시설 대체복무생활관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 '대체복무운영현황'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대체복무생활관은 9월 3일 개관했으며, 10월 22일부터 3차례에 걸쳐 총 66명의 의무교도대원들이 배정됐다.



####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 미용봉사자 교정위원에게 감사패 전달

춘천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9일 미용봉사자로 재능을 기부해 온 박미숙 교정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흥천군 소재 뷰티샵을 운영하는 박미숙 교정위원은 2010년 8월부터 춘천교도소를 방문하며 여자 수용자들의 머리 손질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원주교도소 / 교위 천병훈

##### 신규 의료과장 임용식

원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신재전 의료과장의 신규임용식을 가졌다. 원주교도소에서의 새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였던 이날 행사는 임명장 및 기념선물을 수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 24년 제6기 석방 전 교육 실시

강릉교도소는 지난해 12월 9일 ~ 11일 출소일이 임박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석방 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는 한국보호복지공단의 강사 5인을 구성, '사회복지지원 안내', '신용관리 및 금융 관련 상담',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안내' 등의 내용으로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응원했다.



#### 영월교도소 / 교사 김준일

#####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 실시

영월교도소는 지난해 12월 9일 월사랑의 연탄나눔 활동을 실시, 지역사회와의 온기 나눔에 나섰다. 이번 활동을 위해 영월교도소 직원들은 성금을 통해 연탄 600여 장을 마련했으며, 직원과 대체복무대원들로 구성된 봉사회는 이를 영월읍 소재 3가구에 약 200장씩 배달했다.

####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 '사랑의 헌혈'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해 12월 6일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은 최근 헌혈자 감소에 따라 혈액 일일 보유량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실시됐다. 강원북부교도소는 이번 헌혈은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과 국내 혈액 수급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 수용기록·석방업무 교육 실시

수원교도소 평택지소는 지난해 12월 10일 수용기록·석방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참여 직원들은 입출소 시 유의사항 및 오인 출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수용기록·석방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소망교도소 총무과 / 주임교도관 박성호

세례식 진행, '변화된 삶,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소망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9일, 당해 두 번째 세례식을 진행했다. 세례식에는 재판법인 아가페 이사장 김삼환 원로목사와 전 법무부

장관 김승규 이사 등 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총 26명의 수용자가 세례를 받는 가운데 수용자의 가족들도 참석, 수용자들의 변화의지를 북돋았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음주운전 근절 위한 직원 교육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해 12월 10일 대구지방교정청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연말연시 찾아오는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직원들의 의지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대구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1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및 교정행정 홍보 방안 등 교정행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찾아가는 진로특강 진행

부산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8일 엄궁중학교를 방문, '찾아가는 보라미 진로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엄궁중학교 1·3학년생 340여 명에게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안내하고 교정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현배

경상북도소방본부장 참관 실시

경북북부교정기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상북도 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먼저 합동소방훈련 등에 공이 큰 청송소방서 진보119안전센터장 김태원 외 2명에게 경북북부제1교도소 기관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경북북부교정시설 현황을 소개하고 수용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마산 도서관과 수용자 독서문화증진 업무협약

창원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2일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과 수용자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혜의바다도서관은 향후 도서기증을 비롯, 수용자 교육교화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2024년 하반기 취업창업협의회 개최

부산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1일 청사2층 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취업창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교육의 내실화 방안과 출소예정자 맞춤형 취업상담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지진대피 및 소방훈련 실시

포항교도소는 지난해 12월 3일 지진·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 및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 방지 및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영근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진주교도소 참관

진주교도소가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12월 3일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와 재학생 39명의 방문에 따른 것으로, 진주교도소는 이날 소장 주재하에 교정행정의 비전을 설명하고 참관을 실시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광재원

12월 범어교회 기부금품 전달 및 참관

대구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1일 범어교회로부터 수용자들을 위한 빵과 음료수를 전달받았다. 박옥수 권사는 "교정시설에 대한 선입관으로 참관 전 많이 긴장했다"면서 "그러나 교정시설을 돌아보며 교정행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2024년 외부강사 초빙 장애인식교육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7일 외부강사를 초빙,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발달장애지원센터 이미라 팀장이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등의 내용을 다뤘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발달장애 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

안동교도소는 지난해 12월 5일 안동교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교정 직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방문

경북북부제2교도소에는 지난 12월 12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나영욱 검사가 방문했다. 이영성 소장은 이와 관련, "2교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으며, 나영욱 검사 또한 "엄중한 시설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화답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헌

소년수형자를 위한 '사랑의 붕어빵' 진행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9일 '사랑의 붕어빵' 행사를 열고 소년

수형자에게 갖 구운 따뜻한 붕어빵을 전달했다. 김천소년교도소 교정협의회와 김천대광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소년수형자에게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마음을 전달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채원기

2024년 하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024년 하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지난해 12월 16일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및 악성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전국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회 우승

울산구치소는 지난해 12월 6일 개최된 전국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교정공무원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상호 화합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평가 내용은 체력, 응급구조, 종합진술 수행능력과 같은 직무수행능력 등이다.



경주교도소 / 교위 김선영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경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0일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교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감사 보고', '수용자 교정·교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수용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총렬여중·고, 동원중에 장학금 전달

통영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1일 총렬여자중학교 및 고등학교, 동원중학교 재학생 15명에게 직원 성금으로 마련된 장학금 300만 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통영구치소의 직원 봉사단체 '통영사랑나눔회'는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하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진행

밀양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7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교령 수형자의 증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자문위원회는 '초고령화 사회'라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개청 10주년 송년음악회 개최

상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5일 개청 10주년을 맞아 '변함없는 사랑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상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성악가 등이 무대를 꾸몄으며, 수용자 및 교정위원 등 24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음악과 함께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다.



거창구치소 / 교도 전종일

수형자 개방지역작업장 개소식

거창구치소 외곽 부지에 수형자 개방지역 작업장이 마련됐다. 해당 작업장의 개소로 수형자가 더 다양한 교도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품 입출고실, 환풍시스템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공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9일 기관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계룡시 성폭력상담소 양정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사례 공유를 통한 예방 방안 및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참관

충주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고규봉 지부장 및 법무보호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 참관자들은 충주구치소의 업무 현황을 청취한 뒤 작업장·수용동 등 시설을 둘러봤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사 구자호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2일 교정위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대전지방 교정청장 표창 및 천안개방교도소장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수용자 대상 자체 소방훈련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화재 확산 방지 및 초기 진화, 응급환자 후송 및 대피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수용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혔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총무계 교도 전용배

2024년 하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해 12월 11일 당해 하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논산지소 보안교정관 및 총무교감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하고, 각계 지역 인사로 구성된 5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석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현도

통합사회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소속 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

화재 대비 소방 훈련 실시

대전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7일 화재 발생 시 초기대피와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은 소화전과 소방펌프의 작동 및 사용법을 익혔으며, 응급처치와 재해 대응에 관한 내용을 숙지했다.

청주교도소 / 교사 신동우

알코올 중독 예방 캠페인 성료

청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일 '알코올 중독 예방 캠페인' 관련, 시상식을 개최했다. '알코올 중독 예방 캠페인'은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 행사로, 알코올중독 문제를 극복하고,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현장방문

천안교도소는 지난해 12월 9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의 방문을 받았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도 피보호감호자의 수용관리 실태와 생활관 현장 점검이 이뤄졌으며, 피보호감호자들과 면담으로 수용 처우 및 고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송년 행사로 직원 화합의 장 마련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9일 바자회 및 작은 체육행사를 진행했다. 송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서도 2024년 한 해를 무사히 보낸 것을 자축했으며, 줄다리기 등 팀별 체육활동으로 직원들 간 화합을 다지기도 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제7차 교정연합회 임원회의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지난해 12월 19일 제7차 교정연합회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도 우수 교정위원과 교정연합회장(안운봉)에게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교정연합회장이 기탁한 성금(5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현

외부의료시설 도주사고 대비 긴급출동훈련

광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0일 외부의료시설 도주사고 대비 긴급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일곡지구대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실제 도주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사랑앓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전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6일 '사랑앓 연탄나눔' 봉사 활동을 전개

했다. 이번 활동을 위해 직원들은 성금을 모아 연탄 2,000장을 마련, 전주연탄은행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여덟 가정에 기증했다.



###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수용자 '감사나눔 문화제' 실시

순천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2일 감사나눔 문화제를 열었다. 수용자 300여 명과 교도관이 참석한 이번 행사의 1부에서는 감사쓰기 수용자 6명에 대한 시상식 및 소감문 발표와 외부 강사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직원과 수용자의 듀엣 공연을 비롯해 국악 및 민요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사랑나눔 장학금 전달(무안중학교)

목포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0일 무안중학교 재학생 5명에게 총 150만 원의 사랑나눔 장학금을 수여했다. 목포교도소의 장학금은 전 직원의 모금활동으로 운용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학생을 선발해 매년 2회 전달된다.



### 군산교도소 / 교도 이주민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군산교도소는 지난해 12월 5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022년 출범한 군산교도소의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성화 논의 및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의견 청취와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 제주교도소 / 교도 부혁진 행복한 직장만들기 일일카페

제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8일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행복한 직장 만들기 카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따뜻한 커피와, 직원들이 직접 포장한 쿠키를 직원 및 방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장흥교도소는 지난해 12월 5일 장흥소방서 정남진 119안전센터와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소화기 작동법, 산소마스크 착용 시범을 선보인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발생에 대비하고자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됐다.

###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청년인턴에 직무경험 제공

해남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일 월례회를 마친 후 청년인턴과의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민원실에 근무했던 김민채 청년은 "이번 인턴 생활은 공식 분위기를 알아가는 계기가 됐다"면서 "사무처리 절차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 정읍교도소 / 교도 박준현 교정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 진행

정읍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6일 교정위원과 교정 공무원 간 정보 공유 및 친목을 위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고 유공 교정위원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 모범 공무원

### 인천구치소 교위 김규범



김규범 교위는 2007년 인천구치소에 임용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용자 교정 교화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해 왔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2022년 '고전의 고전'과 2024년 '고독한 이기주의자는 행복하다'라는 책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사월이네 복리뷰'로 활동하며 '책의 해 영상공모전'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김 교위는 이렇듯 평소 자기 계발에 적극적인 뿐만 아니라, 독서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통영구치소 교위 백국현



통영구치소의 백국현 교위는 현재 총무과 장비구매업무를 담당하며, 수용관리 안정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1997년 최초 임용, 2012년 4월 현 직급에 임용된 이래 기피 근무지에 근무하면서 수용질서를 확립했다. 또 수용동 근무 시에는 수용자 수시 상담과 고충처리를 통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했다. 이에 수용자 및 수용자 가족들로부터 감사편지를 받는 등 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에 모범을 보여왔다.

### 공주교도소 교사 유제영



유제영 교사는 기록물관리담당자로 보존서고를 정비하여 기록물 형태 및 보존기간-생산년도 별로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중요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대전지방교정청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에서 2017년 및 2024년 총 2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공주교도소 한울회 총무로서 매년 설 명절 및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인 누리재활원 등을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바자회 자원봉사 활동 참여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이웃사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월간 교정'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 초성퀴즈 도전하고, 교정의 가치를 함께 나눠요!

안양교도소가 지난 2009년 개관한 이곳은 수형자가 출소 후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사회에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

힌트



이곳은 '수형자 중간처우 제도'에 기반한다. 가석방을 앞둔 모범수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게 된다.

□ □ □ □

correct2023@naver.com 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교정>이 교정 관련 논문을 모집합니다.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종류 학위논문(석사, 박사), 학회 논문, 학술지 논문

제출 방법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원고 송부

※ 제출 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웠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 논스톱

으로 해결해요!

국가와 함께 범죄피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을 되찾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범죄피해자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하겠습니다.



137 대 방

3 번 출구 인근 서울여성플라자 3층

문의 1577-1701